
차 례

정관격	1
편재격	12
정재격	25
편재격	32
식신격	40
상관격	43
편인격	57
양인격	65
건록격	77
격국종합	91
격용신과 일간용신	103

정관격

甲戌癸乙

寅辰未巳 乾

- 투간 정관격으로 成格은 되었다
- 官이 많으므로 財生官 해서는 안되므로 財剋印 하는 것임
- 정관격이므로 인성을 봐야하고 인성이 있으면 財剋印이 되어있나 안 되어 있나 살펴봐야 한다. 成格이 되었다고 해도 財剋印이 되었다면 格이 떨어지는 것이고 다음으로 상관을 봐야 하는데 상관이 있다면 정인이 있어야 하는데 정인이 없다면 格이 또한 떨어지게 된다
- 관살혼잡(官殺混雜)으로 인해 정관격에 破格 ⇨ 억부용신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 身強해서 억부용신은 쓰지 못하고 조후용신을 쓰려고 하니 癸水가 財剋印을 하고 있다
- 破格이 된 요인인 殺을 해결하기 위해 습去시키거나 식신으로 제어 하든지 인성으로 剋洩해야 格이 맑아진다(인성은 신왕이라 억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쓰기 힘들다) ⇨ 쓰는 순서가 따로 있다
- 庚金이 오면 乙庚으로 정관이 습去 되 버리지만 약간의 쓸모는 있다
- 정관격이 月 정관이나 투간정관일 때 인성을 잡으면 격국용신이지만 신약할 경우의 인성은 억부용신인데 이 사주의 경우 破格이므로 격국용신을 잡을 수 없고 또한 신강하므로 억부용신도 잡지 못하며 조후용신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癸水가 財剋印 하고 있어 난감하다
- 신약은 官만 있기보다는 財도 같이 있어야 완전한 신약이 된다
- 일단 인성용신을 잡음
- 格이 破格이라 천직이 없으며 이때는 용신이라도 두드러져야 한다 한가지 일에 매달리거나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 喜신이 木多로 많으므로 喜신이 용신보다 더 旺하므로 부모의 기대치는 크지만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다 ⇨ 후원자가 튼튼한건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데 火運에 와야 후원에서 받을 걸 써먹을 수 있고 것이고 용신을 쓰는 것이며 金運에 오면 格을 쓰는 運이다
- 破格을 맞은 사람이 格을 버리고 용신만을 가지고 쓸 때 그 쓰는 방법이 다르다
 - 인성용신에 신강이므로 官이 희신이고 만약 신약하다면 비겁이 희신이다
 - 신약
 - 신왕관왕(身旺官旺)에 格이 서면 貴命이다.
 - 일단 신약은 아니므로 범부는 아니고 신태왕(身太旺)이면 外富內貧한데 이 사주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있다
 - 인성運은 관인상생(官印相生)이 벌어진다
 - 사주가 破格이 되었으면 용신을 가지고 인생을 논해야 한다

甲戌癸乙

寅辰未巳 乾

- 辛巳年 ⇨ 인성으로 귀인을 만날 수 있겠지만 상관으로 직업 쪽으로 불리하다
- 庚辰年 ⇨ 비겁으로 단체와 관련된 일이 발생 식신으로 역시 직업 쪽으로 불리하다

癸己庚丙

酉未寅午 建

- 丙火가 안 떠있다고 가정하고 감정한 것임 ⇨ 원칙적으로 정인격임
- 인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재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서로의 거리로 봤을 때 서로 거리가 멀므로 財剋印이 되지 않는다
- 다음으로 상관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인성을 봐야한다
- 신왕한가를 보아야 하는데 먼저 관살의 剋을 보고 다음으로 財를 보아서 일간을 剋 함이 심하지 않으면 신왕으로 판단하면 된다
- 일간이 旺하고 재성이 官을 生助하면 上格 ⇨ 재성의 生助를 못 받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으므로 上格은 못된다

-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剋하지 못하거나 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상관을 극하고 있으므로 中格의 명조를 갖추고 있다
- 中格 명조만 되도 運의 흐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 破格이 되려면 상관이 살아나는 財가 와야 한다
- 下格으로 만들려면 혼잡이 되거나 정관이 沖 맞으며 되고 가장 두려운 것은 상관이 살아나는 것이다
- 格이 破格이 되는 것과 下格으로 내려가는 것은 엄밀히 차이가 나므로 잘 살펴야 한다
- 어릴 때 파격운(破格運)을 맞았다면 앞으로의 운로에도 그 영향이 오래간다
- 정관격은 첫째 인성을 쓰고 다음으로 관성, 재성을 쓴다 ⇨ 재성은 엄밀히 말해서 용신으로 쓰기보다는 관성을 生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 조열(燥熱)한 사주로 癸水 재성이 조후 역할을 하지만 財生官을 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처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 정관격에 財 용신은 官이 약할 때 쓰는 것이지 인성이 많을 때 쓰는 것은 억부용신에 불과하다
- 정인격이 旺하고 格이 바로 서 있는데 용신이 정관이고 정관도 똑바로 서 있는데 희신이 부족하므로 후광이 뚜렷하지 못하므로 공부를 해도 자수성가 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타인의 도움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직장을 가도 누군가 자신을 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며 격 특히 인성이 년에 있다는 것은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무뚝뚝하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상관에 대한 거부 의식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壬辰月 같은 경우는 丙火와 沖이 되므로 항명을 하게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인성용신이 時에 있으면 마마보이로 여자에게 기대게된다
- 같은 용신이라도 年月日時 각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이나 발현되는 것들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
- 시골 쪽엔 공무원이나 학교선생들이 대부분 정관격들이 많고 도시 내에선 직업의 패턴이 여러 가지이므로 통닭집 등 그 직업 분류가 여러 가지다

癸戊丁己

亥午卯丑 坤

- 학교 선생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퇴직하고 10년 쯤 아이들 가르치고 있음
- 官格, 財格, 傷官格의 경우 신강약을 따져야 하는데 특히 편관격, 편재격, 상관격은 더더욱 따져야 한다
 - ▶ 식신, 정재는 그다지 크게 신강약(身強弱)을 따질 필요는 없다
- 신왕하면 정관(희신), 인성(용신), 재성(喜忌神)을 쓸 것이고 신약하면 인성(용신)과 비겁(희신)을 써야 할 것이다
- 신강약 판단은 편관, 정관, 편재, 정재, 상관의 순서로 그 갯수에 의해 판단한다 ⇨ 일간이 타신(他神)을 견딜만 한가를 따지는 것임
- 용신 丁火에 비해 기신 정재가 훨씬 강하다 ⇨ 財剋印으로 인한 나쁜 현상이 나타난다
- 子水와 癸水가 가장 나쁘고 酉金도 나쁘다
- 未土가 와서 卯未合으로 木生火가 되는 건 火가 살아난다 기 보다는 변화 정도로 봐야한다
- 정관격 인성용신 ⇨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甲己乙己

戌酉亥酉 坤

- 辛巳年 학교에서 발령이 나서 직장을 옮겼음
- 신약에 식신이 너무 강하므로 官도 약해서 신약관약(身弱官弱)이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 官을 생해야 할지 일간을 생해야 할지 택해야 하는데 官을 생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약이므로 印比가 용신이 될 것이고 官弱이므로 財官이 용신이 되는데 이 명식은 따지고 보면 둘 다 용신이 되는 것이고 運에 따라 가겠지만 주업과 분업을 정해주어야만 그 사람의 적성과 진로가 정해지게 된다
- 식신이 강하므로 관성이 혼잡은 되지 않았다 ⇒ 이혼을 했다면 혼잡의 문제가 아닌 官弱의 문제이다
- 관살혼잡(官殺混雜)이었다면 酉金 식상이 용신이 될 것이다 ⇒ 이혼하면 된다
- 정관격에 제성용신이다 ⇒ 일경기긴 직장이나 관료로서 근무를 하다가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자이다
- 신약한 것이 문제이다 ⇒ 戌土가 酉戌습이 되어 제대로 된 겹재역할을 못하고 있다
 - ▶ 身太強한 것 보다는 백 배 낫다 ⇒ 재성의 기신은 비겁이므로
- 酉金이 제거되어 戌土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土克水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막심해진다
 - ▶ 財生官의 상태에서 財의 소멸을 말하므로 남자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고 귀인이 물러가게 되고 이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며 財는 위장이고 씹어 먹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장병이 시작된다
 - ▶ 財生官이 끝나거나 財剋印이 될 때 모두 남자에 대해 고민하지만 財剋印은 남자 뿐만 아니라 그 남자에 대한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함께 고민하게 되며 財生官이 끝났을 경우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데리고 나오지만 財剋印 때의 이혼은 모든 것을 버릴 확률이 높다
 - ▶ 酉金의 경우 沖을 맞거나 巳火가 온다든지 할 경우 겹재가 살아나게 된다
- 정관격이 財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정관격 제성용신이 재산을 파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사업을 하면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서 부업도 같이 하기 때문이다

-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있어 財生官으로 하는 것은 자격증을 따야만 그 위치가 보장되고 승진이 가능한 것이며 財生官 만으로는 직위 보장이나 승진을 이룰 수 없는데 그 이유는 官이란 원래 인성의 의해서 그 역할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 官格에 재성용신은 원칙적으로 인성이 없으면 높이를 보장받지 못한다
- 승진의 시기는 재성운으로 봐야 하며 별정직, 낙하산 인사, 근무처 바뀔 힘든 곳으로 좌천 갔다가 다시 발령 나는 등의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甲木을 亥水로 살리기 위해서는 未土나 卯木을 봐야하녀 이때는 온도의 문제가 달려있다
 - ▶ 巳火나 午火로는 역부족이다
- 이 사주는 한습(寒濕)과는 거리가 멀다
- 이 사주에서 官印이 함께 온다고 해서 財生官과 관인상생(官印相生)이 함께 일어날 수는 없다
- 인성이 와서 관인상생(官印相生)이 될 때는 재성이 용신이므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윗사람이 바뀌거나 해서 일이 발생하며 신약에 인성이 왔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신왕했다면 상사의 실수로 내가 손해를 보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다
- 정관격에 인성용신, 재성용신이 아닌 다른 格의 경우는 破格이 되었을 경우 제일 먼저 일간을 살리고 다음엔 용신을 살려야 한다
- 破格이라고 하더라도 格이 寅申巳亥의 生을 받고 있다면 그 格을 살려주어야 한다
 - ▶ 甲木이 亥水의 生을 받을 때, 庚金이 巳火의 生을 받을 때, 壬水가 申金의 生을 받을 때, 丙火가 寅木의 生을 받을 때

庚丁壬甲

子未申寅 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陰일간의 정관격은 일간과 숨이므로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 일단 판단할 것
- 극신약(極身弱)이면 印比를 용신으로 잡고 신약이라면 官印을 용신으로 잡는다
- 丁火가 뿌리가 없으므로 印比를 용신 잡아야 한다
- 기신은 庚金이고 地支에선 용신과 기신이 沖을 하고 있다
- 정관격에 신약으로 인성을 억부로 쓰게되면서 공무원급에서 급수가 아래로 떨어지게 문화예술계에 종사는 할 수 있으나 그 분류에 있어 낮아지게 된다
- 財剋印이 문제성이 있고 비겁운이 제일 좋다

癸丁壬甲

卯未申寅 坤

- 卯未로 되어있으므로 신왕 정관격으로 앞의 사주보다 신왕관왕(身旺官旺)이 되어 급이 높아졌음
- 신왕의 문제는 정관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신왕이므로 官印을 용신으로 잡는다
- 앞의 사주가 亥中 甲木이 투출했듯이 여기서도 申中에서 투출된 것이 癸水가 아닌 壬水가 투출한 것이므로 殺이 旺해서 官이 혼잡된 것이 아닌 殺이 혼잡이 된 것이므로 관살혼잡(官殺混雜)의 破格으로 는 약한 편이지만 어쨌든 정관격의 관살혼잡(官殺混雜)은 그 格의 높이를 대단히 떨어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 ▶ 格의 관점에서 殺이 강하지 않으므로 殺의 역할로 인한 폐해는 크지 않지만 육친적인 문제는 이와 상관없이 발생하게 된다
 - ▶ 殺이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으로 대인적인 풍모가 나타나기 힘들어지고 으시된다는지 하는 면에서 그 심중의 깊고 얕은 면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丙庚庚己

戌寅午亥 坤

- 편관격 식신용신
- 寅午戌로 局을 이루어 子午沖의 경우만 아니라면 나쁜 일이 거의 없다
- 癸酉 大運 戊辰년에 남편이 급성간염으로 죽음
- 편관격 식신용신자가 局을 이루었으므로 午火만 깨지지 않았으면 좋은 것임
- 三合은 깨어지지만 方合은 깨어지는 법이 없다
- 기신은 子水, 申金, 癸水

乙庚壬乙

酉申午巳 乾

- 정관격에 신태강(身太強)임
- 신태강(身太強)이면 걸만 소문만 요란하고 걸만 번지르르한 외부내빈한 사람
- 비겁이 多로 신태강(身太強)이면 財를 치게되므로 財生官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견으로 강해졌다면 財生官만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 사주의 경우 酉金 겁재로 강해졌으므로 財를 쳐 부인에게 이상이 생길 수 있다
- 신강하므로 인성을 쓰기는 힘들고 식상은 관성이 태왕(太旺)하여 약한 일간을 沖波 할 경우 식상용신을 쓰므로 여기엔 해당이 되지 않음
 - ▶ 식상 용신을 쓰면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자라 할 수 있다
 - ▶ 관성과 식상이 다 旺하면 吉命이고 식상이 약하고 관성이 왕하면 천민
- 신왕에 官이 弱할 경우 재성용신을 쓰는데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時의 양인으로 月의 양인 버금 가므로 겁재를 제거해야 한다 ⇨ 양인의 성품이나 기질은 살아 숨쉬고 있다
- 정관격 신태강에 관살용신이고 재성희신 이다 ⇨ 관살용신이므로 못 먹어도 고우다
 - ▶ 마누라를 늦게 하든지 재혼을 해야함
 - ▶ 일간과 관살이 다 旺하므로 어느 정도 바른 사람임
 - ▶ 무관(無官)도 못 먹어도 GO
- 地支의 겁재는 나의 뿌리가 되지만 天干의 겁재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나에게 해롭다
- 地支의 申, 酉는 조절이 되지 않는다 ⇨ 마음으로 이성적 조절할 뿐이다
- 壬水 식신은 시행착오를 뜻하는데 그 이유는 상관과 달리 일간을 제대로 洩하지를 못하므로 정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 財가 오는 경우는 식신이 좋아지는 것이지 일간의 洩과는 관련이 없다 ⇨ 자기 직원에게 끔찍이 하고 자기는 굶어도 직원월급은 챙겨주는 사람이 됨
- 일간 설기는 상관이 관성 설기는 편인이 능률적으로 잘 한다
- 財가 根이 없으므로 쇠약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壬水가 水生木 해서 木生火 되었다고 보는 것은 쇠약 논리에 어긋나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 식신은 예술가적인 기질이라 할 수 있지만 기술은 아니다 ⇨ 상관이 기술

戊辛丙丁

子丑午巳 乾

- 신왕살왕(身旺殺旺) 편관격
- 관살혼잡격에 식신용신으로 制殺하려고 쓰는 식신은 아니므로 재성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 관살혼잡격으로 破格이므로 굳이 格이라 할 수는 없으며 子水용신을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따라서 재성이 필요한 것이다

- 억부용신은 인성이며 진로로 봤을 때 식상용신이다
 - ▶ 억부용신이 格을 무시할 만 하다면 억부용신을 가지고 진로를 잡아줄 수도 있다

己甲辛戌

巳午酉申 乾

- 35세 까지 水運으로 흘러서 대기업 총무팀에 있다가 운이 끝나자 그만 두고 외국여행 떠남 ⇨ 식상이 관살의 기운을 잡아주었으므로 대기업이 가능했음
- 신약 정관격이 상관견관(傷官見官) 되어서 破格이 되었으므로 상관 기질이 나타남 ⇨ 통변을 상관으로 하라
- 金이 많아 일간이 다칠 수 있으므로 인성을 써야하지만 인성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火를 용신으로 씀
- 식신과 상관 중 용신을 정해야 하는데 상관이 용신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 살아야 하는 명조
- 식상이 旺하므로 주위에서 이 사람을 인정해준다
- ✓破格이 되었을 경우 그 지위에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의 마음 속에는 뿌리깊이 남아있다
- ✓甲子 네 개로 이루어진 사주는 신약으로 甲木을 용신으로 쓰며 子水가 아닌 亥水 였다면 신왕이다
- ✓火가 官일 경우 木이 없으면 결국 火가 꺼지게 되므로 그 지위가 높지 못하고 진급 누락이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火가 식신일 경우 木이 없는 것은 비견이 없는 것이므로 필요할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외로운 사람이다
- ✓상쟁(相爭)하는 경우 통관이 필요한 경우는 金木相爭일 경우다

癸己丙甲

酉巳寅子 乾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신약 정관격 정인 용신 ⇨ 정관격 정인 용신이 제대로 서 있으므로 기신인 재성이 강하지 않으면 됨
 - 정관격 정인 용신자가 정재가 기신이므로 가정을 돌보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팔자
 - 신약이지만 格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됨 ⇨ 약하게 만드는 식상과 편관이 없음
 - 신약 정관격에서 관성은 살인상생(殺印相生) 가능할 때만 官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
 - 편관운이 왔을 경우는 사주가 다소 약한 면이 있으므로 억부를 신경써야 한다
 - 신약 정관격의 경우 비겁이 와도 인성을 洩하든지 格인 정관을 合去시킴으로 해서 기신작용을 할 수가 있다
 - 비겁이 와서 기신 재성을 쳐야 희신이 되는데 이 사주는 戊辰運이 온다면 정작 쳐야할 편재는 없고 정재는 없으므로 인성만 洩을 해서 기신이 된다 ⇨ 공부하다 코피 흘리거나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보신을 하고 주위환경을 잘 살피고 개선시켜주어야 한다
- ✓子水가 寅木을 生하면 濕해져서 丙火가 꺼진다

庚辛丙己

寅巳寅丑 坤

- 신약 정관격 인성용신인데 재성이 多 하므로 破格인데 겁재가 있으므로 成格이 됨
 - 여기서 인성은 어진 남편을 모시고 사는 것인데 재성이 반대하는 형국이므로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양보해야 내가 사는 것 즉 의처증, 의부증 비겁용신이다
- ✓일지 습이나 상관격은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편관격

丁甲辛庚

卯午巳子 乾

- 도박을 좋아하는 사주임
- 편관격에 편관 용신이란 내가 곧 법이다 ⇨ 경호원, 운전수, 운동선수
- 도박이란 官을 중심으로 감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관견관(傷官見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 상관격과 일지가 숨이 된 사람은 칭찬을 해야한다
- 편관격에 억부적으로는 인성용신이지만 격국용신은 편관이다
- 時에 양인을 거느리고 있어서 신약이라 볼 수는 없다
- 편관격에 편관 용신자는 사업을 하면 안된다 ⇨ 이 사주가-사업하는 것은 식상 多로 하는 것이 편관용신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 ▶ 일반적으로 편관용신은 자영업(사업이 아님)을 많이 한다
- 비겁운은 편관과 숨이 되므로 부인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업을 한 하게 되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 火가 왕해서 水가 용신이다라고 하게되면 단순히 억부 측면만 강조해서 보게되므로 실력의 한계가 분명해진다

乙甲乙己

亥寅亥亥 坤 庚辰 大運

- 현재 무당
- 무당 四柱의 요건 ⇨ 인성격, 金克木, 合木, 土水혼합, 원진
 - ▶ 최소한 인성격이어야 하며 상관격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合木이나 金克木의 경우는 火를 못 生 하는 경우 돌아이가 되는 것이고 火를 生해야 어느 정도 무당구실을 하는 것이다
 - ▶ 사주에 만약 丙火가 났다면 가짜무당이라 할 수 있다 ⇨ 머리를 깎거나 절을 세우거나 목탁을 들고 다니는 무당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 丙火나 庚金이 있을 경우 合木을 깨고 木生火 시킬 수 있다
- 자식이 숨이 들어갔으므로 사이는 좋다고 볼 수 있다
- 神 들리는데 있어 卯申 원진이 작용이 강하며 辰亥는 무당은 하기 힘들고 점쟁이는 할 수 있다
- 卯申 원진은 남자神을 의미하므로 혁대를 두르거나 바지를 꼭 입거나 장군신을 모시거나 하는 것임
- 辰亥 원진은 여자神을 의미하므로 히스테리가 심하다 ⇨ 어른과 애들이 같이 있음
- 子水가 없으므로 從格으로 봐도 된다
- 水多로 土가 붕괴되었다고 할 순 있어도 水多木浮라고 할 수는 없다
- 從格은 宮으로 통변을 할 수밖에 없다
- 己土를 남편으로 봐서 아들 낳고 저 세상 갔다고 봄 ⇨ 時支 亥水가 陽이므로 아들이고 자식이 水가 되므로 아들을 낳고 죽은것임
- 寅亥 合으로 물 먹었으므로 통통한 아들이
- ▶ 寅亥合은 火가 藏 되므로 얼굴이 꿈보가 된다 ⇨ 화산이 폭발하지 못하고 있으면 바깥으로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무당이 된 시기는 合木이 된 시기로 볼 수 있다 ⇨ 卯大運에 했음
- 쓸모도 없는 己土가 문제가 많다
- 辰戌, 丑亥, 丑子 ⇨ 神氣가 있음
- ▶ 戌, 未 는 土水 혼합이 못된다
-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며 동자도 있는데 형제이다

壬辛丁辛

辰亥酉丑 乾

- 현재 한의사
- 건록격으로 정관용신으로 원칙적으로 정관을 용신으로 써야한다 ⇨ 요즘의 경우 비견은 식신으로 많이 잡는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요즘의 경우 一行得氣格 같은 경우 식신을 용신을 잡는데 이는 財를 살리고자 함이며 이럴 경우 官은 포기하는 것이다
- 용신이 되어야 할 편관이 根이 없고 財도 없으므로 차선으로 식상을 용신으로 쓴다
 - ▶ 官이 약하므로 직장으로 성공하기 힘이 들고 그 기간 또한 짧다
 - ▶ 여성이라면 官을 쓰기 더욱 어렵다
 - ▶ 木은 쓸 수가 없다
- 인성운이 가장 나쁘며 관성도 상관없다 ⇨ 관성이 원래 용신이므로
- 비겁이 多 ⇨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 유학, 외국
 - ▶ 외국 나가는 운이 비견, 겁재 운임
- 비겁은 多할 뿐이지만 상관은 旺 ⇨ 한가지로 성공함
- 陽干은 대체로 혼잡이 되지 않으므로 地支에 辰, 丑이 있어도 혼잡이 아니지만 天干에 癸水가 떠 있었다면 亥水와 완전히 다르므로 혼잡이 될 것이다

壬己乙壬

申未巳子 坤

- 정인격에 財가 多하므로 格이 不格이다
- 용신은 乙木인데 약하므로 직업관, 직업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 乙木에게 필요한 것 ⇨ 甲, 乙, 癸, 壬, 未, 辰
 - ▶ 寅木에 뿌리를 내렸다면 旺한 것으로 火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
 - ▶ 卯木에 뿌리를 내렸다면 強한 것으로 金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
 - ▶ 亥水에 뿌리를 내렸다면 弱한 것으로 쓰러지지만 않는 것이다. 만약 金을 용신으로 썼다면 사주 내에 卯木이 있다는 뜻이다
 - ▶ 그 외에는 뿌리로서의 역할은 미약하다 할 수 있다
 - ▶ 亥月 乙木은 신약해도 용신을 또 인성을 쓸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버텨야 한다
- 乙木은 甲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乙木 끼리는 동반자이며 壬, 癸水는 크게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는다
- 인성이 있으므로 고관무보(孤官無保)는 아니지만 관성이 단독으로 외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로이 서 있으므로 독불장군 스타일이다

- 식신용신에 官格과 官格에 식신 용신의 의미 등을 잘 고민해 보아야 함
 - ▶ 식신격에 官 용신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이 직장에 꿈을 두는 것이고 官格에 식신 용신이라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업에 꿈을 두는 것이므로 마음 속의 갈등이나 직업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乙甲丙庚

亥戌戌子 坤

- 丙, 庚이 다 투출해 있으므로 월령분야를 따져봐야 한다
- 申金 분야이므로 편관격 에 식신용신
- 土月에 취용한 格은 주위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 ▶ 戌土月은 寅木이나 午火를 보면 火로 취용 ⇨ 運을 잘 살펴야 함
 - ▶ 未土月은 정해지지가 없음
 - ▶ 辰土 역시 찾기가 애매함
- 편관격에 식신이 있어 成格이 된 듯하나 戌月이므로 運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다
- 辰戌丑未月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므로 월령분야와 대운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 개업은 개업한 다음 해가 중요하다 ⇨ 정관, 정인 운은 브랜드 제품을 해야하고 상관운은 미개척지를 개척해야함
 - ▶ 인성운은 새로운 것을 하지말고 하고 있는 것을 발전시켜야 함
 - ▶ 상관운에 개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더라도 몇 번 망했다 일어설 각오를 해야한다
 - ▶ 식신운에 개업은 혼자서는 절대 못하며 친구나 딸이라도 데리고 가서 개업해야 함
- 辛巳年에 天干이 丙辛합으로 상관이 합去되고 地支에는 巳戌 원진과 丙辛합이 또 오므로 개업한다고 말만 해놓고 내년에 하는 것임
 - ▶ 辛巳年 7월에 개업을 했는데 조사해야할 기간에 개업을 했으므로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장사는 안될것임

己乙丁辛

卯卯酉丑 坤

- 편관격에 丁火가 약하고 살인상생(殺印相生)도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식신을 용신으로 잡는다
- 기신은 水인데 만약 남편이 잘하게 된다면 남편이 바람을 펴서 미안해서 어떻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만약 남편에게 사랑 받고자 한다면 그 때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하며 절대 사랑을 받거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도 조언을 해주어서도 안된다
- 용신은 약하지만 희신은 튼튼하므로 부자 속에 가난한 자이므로 그 틀 내에서 자신이 가장 약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용신인 남편을 위해서 절대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한다

甲癸庚

辰未戌 乾

- 용신을 편관으로 잡으면 癸水가 희신이 될 것이고 정인으로 잡으면 희신이 庚金이 될 것인데
- 정인 용신이 된다면 용신인 癸水가 辰土에 뿌리를 박고 희신인 庚金 또한 매우 튼튼하므로 1등 사주가 된다
- 용신은 편관이다
- 재다신약으로 편관용신이므로 사업이 가능하지만 정관용신으로 잡았다면 미관말직 공무원 사주가 된다

甲辛甲辛

午未午亥 坤

- 연예인 ⇨ 얼굴은 별로고 애교, 몸매가 대단히 좋음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편관격에 재생살이 왕하므로 비견이 용신이고 인성이 희신이고 亥水는 상신(相神)이다
- 편관격에 극신약(極身弱)으로 亥水가 午火를 습殺 시키지 못했다 ⇨ 官格은 극신약(極身弱) 하면 안된다
- 金 일주가 비겁용신을 쓰면 運이 30년마다 한 번씩 밖에 안 들어옴
- 희신이 일지에 있으므로 귀인이 많은 사람이다
- 신약살왕(神弱殺旺)이므로 일등급은 되지 못하고 기사회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 상관이 용신이 아닌 상신(相神)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年의 비견이 나 대신 희생을 해주는 역할임
- 辛巳年은 相神이 沖을 맞았으므로 상다리가 부러진 격으로 배신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
- 비겁 용신이므로 연예인 단체로 가든가 매니저가 되든가 단체구성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함
- 사주에 편관이 아닌 殺만 있으면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를 사람이다

戊辛戊戌

戊亥午午 乾

- 사진작가이며 부모의 도움을 전폭적으로 받고있으며 여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
- 인성과다(印星過多)로 재성 용신인데 無財라 비겁이라도 써야 하는데 비겁도 없다
- 인성에 의해 설기가 심해 官이 弱하다고 官을 쓸 수도 없다
-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상관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하고싶은 것만 하는 사람임 ⇨ 인성다봉(印星多峰)으로 인성격이 되어버렸으므로 적성은 인성인데 진로는 없다
 - ▶ 일지 상관은 자기가 하고싶은 것을 하는 것이며 辛巳年은 巳亥沖으로 자기가 하고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의미임
- 용신은 어쩔 수 없이 식상이 용신이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파묘상관(破了傷官)이 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가 있고 亥水까지 있으므로 토다금매(土多金埋)는 되지 않는다
- 원래 취해야 할 용신이 없으므로 직업관이 없고 따라서 運이 아무리 좋게 오더라도 대성할 수는 없다
- 혼잡이 전혀 되어있지 않으므로 순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乙辛丁壬

未丑未子 乾

- 편관격에 인성과다(印星過多)
- 殺이 약하다면 財生殺, 殺이 旺하다면 상관합살(傷官合殺), 신약이라면 살인상생(殺印相生) 시켜야 할 것이다
 - ▶ 상관합살(傷官合殺)은 모사꾼을 만드는 격임 ⇨ 청와대까지 이르는 사람
 - ▶ 어디가 가려운지 알고 대처하는 사람으로 외교관, 국제변호사, 펀드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옛날 같으면 부동산 중계, 대기업연계 물류센터 등을 함
 - ▶ 지속적인 일이 아닌 한 건 크게 하고 1년 노는 것 등
- 財는 너무 약하고 상관은 너무 강하고 土는 너무 多해서 각각을 써는데 애로가 있다
- 運이 金水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壬水를 써서 사업에 임해야 하지만 運이 財나 印으로 간다면 달라진다
- 상관 용신이라면 庚戌 대운에 직장을 다녀야 한다
- 편관격에 살인상생(殺印相生)을 쓸 경우는 殺을 制하는 식상을 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용신은 상관이라 할 수 있지만 혼재되어 있으므로 運에 따라서 변화가 많다
 - ▶ 土運이 들어오면 살인상생(殺印相生)하고 金運이 들어오면 돈을 벌면 되고 水가 들어오면 편관을 살리지 못하므로 직장에서의 소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득아 없다

- 年干의 상관 ⇨ 부모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 받게되면 다 날리게 된다
- 丑未沖 ⇨ 丑未沖은 사고가 나거나 부모와의 이별, 부모형제간 배반을 의미한다
 - ▶ 이 사주에서 丑未沖은 木이 沖을 맞은 것이므로 부인에게 문제가 생긴다 ⇨ 부인에게 사고가 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음
- 재혼하면 좋아지는 사주
- 억부용신은 木이다
- 癸水가 온다면 식신으로 제어를 하게되므로 일거리가 생기게 되고 평소와 달리 짝 찬 일정을 짜서 일을 하게된다
 - ▶ 정관, 식신, 정재 용신은 짝 찬 일거리가 있어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래 같은 사람으로 일을 못하면 환장하는 사람이다
 - ▶ 편관, 편재, 상관은 짜여진 것을 싫어하고 내가 만든 일정을 따르려고 한다

丁癸丁辛

巳丑酉亥 乾

- 현재 모친의 부도로 수배 당한 중임
- 편인국을 짝 편인격으로 편재 용신
- 火, 水는 生이 없으면 그 힘이 미약하다
- 인성과다(印星過多)로 이복형제인데 巳亥沖으로 배 다른 형제에게 추방을 당함
- 財剋印이 확실히 되어 있으므로 부모 원망을 하든지 하지는 않음

辛巳甲甲

未亥戌寅 坤

- 이론상 식신격 영업용으로는 정관격
- 亥未合은 木이 있어서 木으로 化 할 수 있음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오리지날 식신격이 아니므로 연애에 능숙하진 않다
- 식신이 강한 이유는 토가 너무 많아 土克水로 약한 것이다
- 無인성 ⇨ 남자를 보면 저 남자가 나를 지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게 됨
- 巳亥沖으로 일지를 건드림 ⇨ 내가 유리한 방향을 찾고자 함
 - ▶ 月의 沖은 변동을 의미
 - ▶ 巳亥沖은 돈보고 이동을 의미하지만 巳戌 원진으로 기간이 오래 걸린다
 - ▶ 을 해 직장 옮길 운은 없다

乙巳丁甲

丑酉卯寅 坤

- 관살혼잡으로 破格이므로 운 따라 통변을 하면 된다
- 일단 식신으로 해결할지 인성으로 관인相生 시켜 해결을 시킬지 결정 해야하는데 편인까지 있어서 또 破格이 되었고 편인이 제일 약하다
- 편관은 일단 耗을 해야한다
- 운이 재생살로 흐르므로 희생봉사를 해야한다
- 정관은 멀고 편관은 가까우므로 처녀 때는 바람을 피지 않지만 결혼을 하면 바람을 핀다 ⇨ 압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격
- 편관격이 殺이 되어버려서 남자 맛을 한 번 보면 브레이크가 없다

己丙辛丁

丑申亥酉 乾

- LG전자 디자이너
- 원칙적으로 편관격이 財가 多해서 비겁을 써야 하지만 비겁이 너무 약하므로 식상과 비겁 중 한가지를 택해야 한다 ⇨ 겁재 보다는 식상을 쓰는 것이 훨씬 똑똑하고 쓸모가 있다
- 편관격은 격, 용신, 일간이 충분이 왕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편관격에 극신약(極身弱)이라서 破格이고 재생살의 형태임
- 약하지만 용신은 겁재로 쓰지만 겁재라는 특성이 결국 떠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좋은 운이 길지 못하고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壬甲甲乙 申戌申亥 坤

- 편인격에 식상이 없어서 살인상생(殺印相生)이 되었음 ⇨ 生地 편인격으로 완벽한 편인격
- 편관이 식신이 없어서 官이 조절이 못되어 억부가 무너지고 아버지 떠나감

戊丁戌乙 申酉子亥 坤

- 편관격이 식신이 없거나 인성이 없거나 습殺이 되지 않았다면 官이 아닌 殺로 봐야 한다
- 극신약(極身弱) 사주로 破格이 되었다
- 戊土나 乙木이나 결정을 해야하는데 殺이 되어서 억부용신인 木火가 용신이다 ⇨ 지지는 火가 용신이다
- 乙木 인성이 년에 있어서 다행이다
- 辛金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 제일 위험하다

壬辛丁辛 辰亥酉丑 乾

- 戊寅년에 이혼함
- 大運이 水運을 거쳐서 오므로 재혼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줄 것 ⇨ 官을 살려야 하므로
- 財가 들어오면 상관생재(傷官生財)를 할 것인지 財生官을 할 것인지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상관생재(傷官生財) 밖에 못하는 상황임

戊丙戊乙

戊申子亥 乾

- 정관격에 인성용신
- 용신보다 기신이 지나치게 많아 사회악으로 있거나 마나한 사람이다
⇒ 심성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도움이 안되는 사람임
- 정관격은 태약해도 편관격 보다는 살만하다
- 格 보다 억부를 조절하는 것이 시급함

丙癸己庚

辰巳丑戌 坤

- 陰日干이 비견으로 신왕하다면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당이나 정육점 같은 것에 머물게 된다
- 陰日干은 어떠한 格이든 나를 비롯한 환경 조건이 만족치 못하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월지도 조절해야 되고 일간도 조절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陽日干은 그렇지 않다
- 陰日干은 일단 내가 편안해야 하고 편관격이란 제살(制殺)을 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 사주에서는 조후 까지도 따져야 하므로 심란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巳火가 조후를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조후에 연연하다간 財生殺로 신세 망치는 수가 있다
- 식신이 없으므로 편관 조절이 되지 못해 살인상생(殺印相生)으로 庚金 용신을 하지만 破格이고 丙火까지 있어 더욱 가중되며 억부로 넘어가게 된다 ⇒ 편관격이 成格 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 억부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혼의 첩경이다 ⇒ 財生殺이란 내 신념을 다 받쳐 남편을 떠 받친다는 의미인데 남편은 그 뜻을 알아주지 않는 것임
- 편관격에 정인용신 ⇒ 직장인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木이 온다면 木을 살릴 수 있나 없나를 봐야 하고 지지에 있는 격은 두들겨 패든 어찌든 상관없이 없지만 천간에 있는 格은 건드리면 안된다
 ⇒ 乙木이나 甲木은 곤란하며 乙木은 용신을 기반(基盤)시켜 제일 나쁘다
- 이혼의 기준은 35세 전후로 보는 것이 맞고 40이 넘어가면 대체로 포기하는 분위기가 된다

己丁戌乙

酉未子卯 坤

- 제살태과(制殺太過) ⇒ 애 낳고 남자가 힘들어 짐
- 용신은 인성

丙丁戌乙

午未子卯 坤

- 신왕살약(身旺殺弱)
- 辛 대운에 국민학교 선생으로 발탁

癸壬戌庚

卯午子戌 坤

- 양인격 편관용신이 원칙이지만 水 일간의 경우는 양인격이라 하기엔 무리가 많으며 天干에 丙火가 있어야 上格으로 양인격이라 할 수 있다
 ⇒ 壬水 일간이 양인격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 ▶ 五行의 생장수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의미하며 丙火가 아니라면 甲木이라도 있어야 한다
- 子月에 戌土로 용신을 잡는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곤란한 점이 많아 대체로 火로 용신을 잡아준다
- 양인이 合殺이 되어있는데 또 식신이 오면 편관이 박살이 나며 겹재로 合殺을 시키는 건 편관격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양인격에서 겹재로 合殺을 시키지는 못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양인이 가지고 있는 존경심과 식신이 가지고 있는 財적인 풍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를 찾고자 한다 ⇨ 사주에 합도 없고 식상도 배어나지

못하므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여자는 아니며 時主가 癸卯로 오히려 그의 친구가 더 섹시하고 예쁜 모양새다

丁癸辛辛

巳酉巳卯 坤

- 신약에 財는 왕하고 財가 혼잡되었다
- 정재격에 편인이 투간했는데 편인을 格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 무관(無官)으로 신약에 굳이 인성을 용신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용신은 인성이며 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성용신이다

정재격

●旺衰強弱

- 旺 ⇨ 中和를 이룬 것으로 旺하거나 旺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함
 - ▶ 寅申巳亥를 말하는 것으로 丙火가 寅木을 보는 것, 壬水가 申金을 보는 것, 庚金이 巳火를 본 것, 甲木이 亥水를 본 것
- 強 ⇨ 다른 것을 旺하고 자신이 旺을 받을 필요가 있다
 - ▶ 子午卯酉
- 弱 ⇨ 旺을 당해서 弱해진것
 - ▶ 편관에 의해 旺 당했거나 印比가 없을 경우를 말함
- 衰 ⇨ 내가 旺하거나 洩 당해서 弱해진것
 - ▶ 財나 食상에 의해 약해진 것
 - ▶ 衰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인성이다

●식상과 재성

- 식상은 두 갈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하는 것이고 편재는 사거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여우짓, 토끼 발자국 남기는 것들은 옆길로 세는 것은 대부분 地支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발자국을 지우고 다니는 것은 암장(暗藏)이다 ⇨ 인간의 지저분한 희노애락은 地支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 교수가 인성의 뿌리가 대체로 식상이나 財에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걸으론 점잖지만 밤에는 룸싸롱을 간다든지 하는 음양의 교차적인 의미와 행동이 나타나며 이는 陰이 陽으로 가고자 하고 陽이 陰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丙辛습은 조건 습으로 조건, 뇌물, 부정, 돈을 의미하며 丙辛습으로 暗藏에서 바람 피다 들키면 반드시 핑계가 알리바이가 있다
- 여자가 財가 없으면 남편에게 잘 해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식상이 들어온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는 인성運으로 따라서 인성運에도 이혼을 많이 하게 된다. 여성의 특성상 인성運은 남자를 평가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운이

다

- 식상과 재성에 대한 희신은 노력이 별로 필요 없지만 관성과 인성에 대한 희신은 노력이 없으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
- 식상과 재성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
- 특히 인성이 희신이나 용신인데 地支로 오면 심하고 土일 경우는 더 더욱 심하며, 水나 木이면 비겁에 의해 홀라당 빨려 나갈 수 있으므로 그 실수가 더더욱 크다
- 財格의 특징은 인성으로 적성, 진로를 봐도 틀리지 않는다
- 정재격은 정재월, 정재투간도 정재격이지만 정재가 약하면 강한 육신이 格이 된다
 - ▶ 따라서 정재격은 두 가지로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편재와 정재

- 정재격은 運에 따라 성패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편재격은 運에 따라서 어떻게 쓴다는걸 아는게 중요하지 어떻게 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정재격이 운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만 편재격은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편재란 즐기는 것이므로 지금 룸싸롱에 있는 것인지 건설현장에 가 있는 것인지 여행중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 편재격이다.
-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편재, 천길 물 속은 알아도 그 사람은 마음을 모르는 건 편인,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은 원진살(怨嗔殺)이 세 글자가 모이면 대책이 안 선다
- 편재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한 것이며 삶의 목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이지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 정재는 빌딩을 지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편재는 빌딩을 지어서 어떻게 간판을 세우고 종업원을 부리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 편재는 돈 자체에 의미를 두지만 편재격은 돈의 경로를 알고 그것을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넓게 활용할 수 있다

- 편재가 약하면 소심증이 있고 편재가 강하면 과대망상증을 가지고있다

丁癸丙己

巳亥寅酉 坤

- 첫째 일간의 強弱을 먼저 따진다 ⇨ 내가 羸한게 많아서 衰하므로 인성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官을 따져봐야 하는데 官이 뿌리가 없으므로 심약(深衰)하며 뿌리는 없고 生만 잔뜩 받고 있으므로 強해 졌다

戊辛庚辛

戌巳子丑 乾

- 일간이 羸 받지도 뿌리를 박은 것도 아니어서 衰한데 나를 生한게 多 하므로 強하다 ⇨ 子午卯酉의 強과는 다르며 衰한 사람이 強하다는 것은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척 하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격이다
- 身이 衰하기 때문에 인성이 억부용신이 된다
- 겉재가 旺하므로 身이 더욱 衰가 되었다

壬己壬甲

申酉申辰 坤

- 신약 정재격으로 식상이 과도해서 破格
- 인성을 용신 잡아야 되는데 없으므로 용신이 없다 ⇨ 직업관이 없다
- 格은 있으므로 천직은 있지만 용신이 없으므로 천직을 자신이 모르는 것이다
- 어쩔 수 없이 용신은 財로 잡는다
- 만약 辛未時라면 비견용신이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火運이 온다면 좋은 運이긴 하지만 적성이 火에서 나올 수 있지만 진로는 원래 財이므로 火運이 진로를 결정하거나 바꾸게 하지는 못한다
- 이 사주에서 잡은 財 용신은 진로를 위해 잡은 것임
- 사실상 상관격으로 볼 수 있는 사주다
- 인성과 재성 두 가지를 겸해야 하므로 배워서 남 주지 말고 학원이나 차려야 할 사주
- ✓ 水火는 사주에 없어도 運에서 용신으로 쓸 수 있지만 金木은 사주에 없을 경우 運에서 와도 쓰지 못한다

丙戌庚丙

辰申子午 乾

- 정재를 子水 하나로 본다면 庚金이 용신이고 信자진 水局으로 본다면 火가 용신이 될 것인데 이때 旺衰 판단이 필요하다
- 庚辰年 파산했음
- 火運은 평탄한 운
- 용신은 金

壬戌戌丁

子辰申未 乾

- 결혼은 두 번 했고 庚辰年 파산했고 辛巳年 10억 넘게 벌
- 財格의 첫 번째 특징은 官이 없거나 官을 生하지 않으면 그 쓸모가 없다
- 위의 사주와 숨이 잘 맞는 사주임
- 용신은 金

庚丁庚戌

戌卯申申 乾

- 財多身弱으로 비겁이 용신인데 비겁이 없고 인성은 식상이나 官이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旺해야 잡는 것이므로 잡을 수가 없고 남는 건 官 밖에 없는데 官을 잡자니 財多해서 財生殺이 심하게 되어 문제고 또한 용신이 지나치게 약한 것이 되어 돈 안되는 것만 하는 인간이 됨

- 官이 용신 인성이 기신
- 金運은 官은 生하면 좋은 運이지만 生하지 못하고 인성을 剋한다면 탐재괴인(貪財壞印)으로 문서 탈이 일어난다
 - ▶ 인성이 약한데 비겁이 들어와도 괴인(壞印)작용이 일어난다 ⇨ 인성이 약하다라는 건 오랫동안 준비했다라는 의미인데 그 결과가 없이 허무하게 끝이 난 의미로 괴인(壞印)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한다
 - ▶ 탐재괴인(貪財壞印) ⇨ 몰래 문서 탈이 날 수 있는 일을 해서 터진다는지 가게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일의 발생
- 亥水가 들어오면 官이긴 하지만 亥卯로 木이 되므로 처음엔 좋다가 나중엔 나빠진다
 - ▶ 官을 잡으면 재성이 희신이 되며 인성은 약한 官을 洩한다
- 정재가 혼잡이 안되어 있으므로 현처라고 할 수 있지만 원진(怨嗔)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한다
- 財格은 일단 비겁운은 조심해야 한다

戊丙癸甲

戊子酉午 坤

- 신왕재왕(身旺財旺)으로 인성용신

癸壬壬乙

卯寅午巳 乾

- 식상이 旺해서 財多身弱으로 인성용신인데 인성이 없고 官도 없으며 財多身弱에 인성이 없을 경우 官을 용신으로 잡는 법은 없다
- 정재로 용신을 잡는다면 겁재가 있으므로 벌어서 받은 빼앗기는데 두 개나 있으므로 3분의 1이 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종재격(從財格)이다
- 비겁용신은 원칙적으로 財旺해서 財生殺로 殺까지 旺할 때 취용(取用)한다
- 상관격에 財용신 ⇨ 점쟁이용
- 식상이 대단히 弱할 때 도식(倒食)이나 파료상관(破了傷官)이 될 경우 목숨이 위험하다 ⇨ 金克木이 되어야 해당사항이 된다

癸壬壬乙

卯寅午卯

- 정재용 정재격 ⇨ 일하다 지치면 여자 만나고 항상 여자에게 의지하고 만나는 사람

丁癸癸辛

巳酉巳卯 坤

- 財 혼잡으로 재성으로 인해 신약이 되었으며 비겁용신, 인성이 희신이지만 생장수장(生長收藏)에 의해 희신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 地支의 기신은 희신인 酉金을 습去시키는 巳火이며 天干의 기신은 丁火이다
- 巳火가 또 들어온다면 세 개씩이나 되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庚庚乙癸

辰申卯丑 坤

- 정재격에 무관(無官)이고 신왕하다
- 신왕재왕(神旺財旺)하면 인성용신이지만 인성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왕해서 財를 보호하기 위해 상관을 용신 잡아야 하는데 원래 용신은 인성이므로 傷官生財를 살리기 위해 만학도가 된 것임
- 용신은 官이다 ⇨ 원국이 아닌 運에서 잡은 것임
- 원국용신은 癸水 상관, 운로 용신은 官, 신왕재왕이므로 인성까지 다 필요한 이 모두를 용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셋을 적절히 배합을 해

서 추명을 해야한다

- 재격(財格)은 官이 없으면 식상생재(食傷生財)를 해도 그 쓰임이 별로 없다
- 인성過多가 일간을 生하지 못하고 식상만 旺하면 일은 안하고 공부만 하는 만학도 이다
- 용신이란 한 가지로만 되어야 하는데 재왕신왕(財旺身旺)이라는 정신적으로 원하는 인성, 행동에서 나의 급수를 높여보고자 하는 상관, 사주가 陰濕하므로 남들보다 많이 노력해서 뛰어 나가야겠다는 官星 세 가지의 복합적인 심리가 심사를 어지럽게 만든다
- 財格에 비겁이 旺하거나 비겁이 용신이면 이복형제가 있다

丙庚乙癸

戊申卯丑 坤

- 신왕재왕(身旺財旺)에 상관인 용신인데 상관이 힘이 좋다면 최상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사주에 불과하다
- 癸水가 根을 할 수 있는 것은 子水 밖에 없으며 生은 庚金이 가장 잘해준다
- 신왕재왕관왕(身旺財旺官旺)으로 구성상으론 완벽하다
- 癸水가 용신이고 약하다
- 기신은 丁火이고 地支로 火가 들어오면 쓰며 地支의 기신은 없다
 - ▶ 火가 들어오면 丙火가 있고 木이 들어오면 乙木이 있으므로 용신인 癸水를 방해할 수가 없다
- 신왕관왕(身旺官旺), 신왕재왕(身旺財旺), 신왕식왕(身旺食旺), 모두 다 인성을 용신으로 취한다. 신태왕식왕(身太旺食旺) 하면 재성용신(財星用神), 신태왕관왕(身太旺官旺) 하면 재성용신(財星用神), 신태왕재왕(身太旺財旺)하면 식상용신(食傷用神)

편재격

●정재와 편재의 개념정리

- ①정재가 장래를 위한 돈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편재는 돈의 경로를 쫓는 것으로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용신에 의한 그 변화가 천차만별인데 편재 보다는 정재가 더 심하다
- ②편재가 겹재가 있을 때 官용신을 하는데 겹재가 없으면 겹재가 相神 역할 또한 하므로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
- ③정재격은 일간 위주로 된 것이므로 신약하면 못 써먹는데 반해 편재격은 財와 官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신약해도 상관없다. 따라서 정재격은 돈은 것 내 것이라는 의미고 편재격은 돈을 벌면 官으로 가는 것이므로 돈 축적 후 官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 ④정재격은 일단 용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
- ⑤정재격의 관성용신 ⇨ 정재격 중 가장 잘 나가는 사람으로 구청에서 세금 걷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부 공무원, 은행, 증권 등의 입신 양명자이지만 만약 상관運을 만나면 뇌물 사건이 일어난다
- ⑥편재는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지만 편재격은 돈의 경로를 알고 돈을 버는 것을 즐기는 한 차원 높은 행동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財格의 용신

- ①관성용신 ⇨ 공직자로 경영 + 경제
- ②재성용신 ⇨ 사업, 공직(정치적), 별정직
 - ▶ 사업을 안한다면 금융계통의 공직자이며 나쁘게 되면 부정축재자가 된다
- ③식상용신 ⇨ 사업
 - ▶ 식신이면 경제이고 상관이면 경영이다
- ④인성용신 ⇨ 사업가부터 고민가까지 할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
 - ▶ 식상만 안 건드리면 사업을 하며 만약 식상을 건드렸다면 부인이

사업을 하는것임

▶ 관성을 설기시켰다면 점포업, 자영업

⑤비겁용신 ⇨ 대업을 이룬 사람부터 브로커까지

●기타통변 1

- 財格에 재성용신자는 농사를 지을지은 정 항상 구두 하나는 닦아놔야 한다 ⇨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므로
- 財格에 재성용신자는 권력에 마음을 두고 있으므로 모임이나 협회에 두루두루 모임에 잘 나간다
- 財格에 재성용신자 여성은 제일 가정적이고 관성용신자도 가정적이다
- 財格의 첫번째 용신은 官이므로 명예를 바라며 官이 없다면 그 정신력이 명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용신은 食상인데 食상이 없다면 또한 돈 버는데 그 정신이 미련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인성용신이라고 팔짱 끼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요 라고 한다구 해도 뚝 품 밖에 안되므로 굳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쳐 널 필요는 없는 것이다
- 財格은 부와 명예를 모두 원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거짓말이다
- 財格의 일간용신은 모두 인성이고 財에 대한 용신은 食과 財이다 ⇨ 財格 자체는 다중인격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인성에 대한 것들이 충족이 안되면 우울증이 발생한다
- 官格의 官에 대한 용신은 인성이고 일간에 대한 용신도 寅성이다
- 여성이 財格에 재성용신은 가정적이므로 사회성이 약할 수 있다
- 여성이 財格에 재성용신자가 가장 나쁜 것은 財가 旺하지 않은데 多한 경우이며 財格이 아니라 재성으로 통변하는 것임
- 財格 재성용신자가 인성이 多한데 약한 관성이 있다면 3급 공무원의 명으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큰 영웅호걸을 될 수 없다 ⇨ 사고칠 일이 없으므로
- 財格은 운 따라 그 마음이 흔들흔들 하게 되므로 일단 財格이라는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것을 염두에 두고 운 따라서 통변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 기본적으로 정인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편인은 독서중 고민중 공부중의 의미라 할 수 있다
 - 편인은 사람을 가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에 맞아야 한다
 - 살인상생(殺印相生)의 편인은 짝짝 우긴다 ⇨ 식사를 쳐서 부도가 나는 상황인데도 절대 아니라고 짝짝 우긴다
 - 인성이 官을 완전히 설기시켰으면 직장이 없는 것이지만 官을 어설 프게 洩을 시켰으면 프리랜스이다
 - 財格 재성용신자가 인성이 多한데 약한 관성이 있다면 3급 공무원의 명으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큰 영웅호걸을 필 수 없다 ⇨ 사고칠 일이 없으므로
 - 財格 인성용신 여자는 시댁에 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비위를 다 맞추고 살아야 한다
 - 정재는 미래지향적이지만 편재는 현실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다
 - 財格은 고향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 비겁을 꺼려하므로, 꿈을 이루기 이해 떠남
 - 일지 편재는 푼수로 항상 돈을 흘리고 다닌다
 - 비겁이 旺하지도 못하고 비겁만 잔뜩한 사람은 마음만 효자다
 - 비겁격 또한 고향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 비겁이 싫어서,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므로 자수성가하기 위해 떠남
 - ▶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집안의 책임을 떠맡게되는 장자
 - ▶ 돈 벌면 한달 50만원은 보낼게
 - ▶ 돈이 안 벌리면 이번 월급이 안나와서 못 보내줍니다 라고 한다
 - ▶ 항상 부모 생각을 함
 - 편재격은 돈 벌면 장자노릇을 한다
 - ▶ 기부적인 성격으로 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
 - ▶ 성공하기 전에 안들어올게 하구 나감
 - ▶ 아버지 눈 좀 팔아서 돈 좀 보태달라구 함
 - ▶ 일단 물질, 백그라운드를 찾아서 그 백그라운드를 자신이 차지함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木일간은 水가 없으면 적성이 水로 간다 ⇨ 格用이나 기타의 것과 상관없이 적성을 정해버린다
- 조후용신이 잘 되어있는 사람은 쉬어야 할 때 쉬지만 조후가 되어있지 않으면 쉬지 못한다
 - ▶ 식신, 정인 조후 ⇨ 실컷 쉰다
 - ▶ 상관 조후 ⇨ 남 시키고 쉰다
 - ▶ 편인 조후 ⇨ 문 열어놓고 커튼 치고 살짝 쉰다. 선잠 자는 놈
 - ▶ 재성 조후 ⇨ 계산 해가면서 쉰다. 주머니에 일단 차면 쉰다, 안차면 밤 샌다
- 甲木 일간이 丙火용신으로 잡았는데 乙木이 옆에 있다면 그 복이 50% 반감되는 것이고 乙木 용신이 丙火용신을 잡았는데 甲木이 옆에 있다면 그 복이 50% 먹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乙木 입장에서 쏴다
 - ▶ 누가 손해고 누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상태가 완전히 다르다
 - ▶ 乙木에게는 폼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붙어서 살아라고 충고하면 되는 것이고 甲木에게는 저너석들 좀 떨구고 살아라고 해도 팔자라 그게 맘대로 되지 않는다
 - ▶ 이러한 것들이 일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 편중되어 못 쓸 것 같아 보이는 사주의 경우도 格이 똑바른 사주의 경우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사주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격에 대한 공부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일간이 격과 역부를 무시하고 가는 사주

- 산을 넘어가는데 있어 格은 원래 자신이 넘어가야 할 산이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역부가 넘어가려면 짐꾼을 부려서 넘어가는 것이지만 일간이 넘어가려면 산전수전 고생이 많은 법이다
- 이러한 일간의 법을 알려면 생장수장(生長收藏)과 生旺을 알아야 하며 生이 유여하지 못하면 절대 써먹을 수 없다
- 木 일간이 丙火를 타고났는데 火가 旺한 상태에서 水가 없다면 일간이 바라는 것이 당연히 水인데 사주에 없다면 용신으로 쓸 수가 없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다. 만약 運에서 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일간만이 좋아할 뿐 水克火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生도 剋도 안하는 생화극제(生化剋制)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시골 가서 욕심부리지 않고 분수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강도사주

- ①陰일간 양인 ⇨ 비견月
- ②陰일간 건록 ⇨ 겁재月
- ③무관(無官) ⇨ 무관(無官)이란 근심걱정을 하고있는 상태이므로 옆에서 건드리면 계급장 떼고 싸우자는 식이 됨
- ④백호살, 괴강
- ⑤土沖
- ⑥편관 ⇨ 우발적
- ⑦巳亥沖, 寅申沖

戊己己癸
辰卯未卯 乾

乙丙
卯辰
3929

- 陰일간, 土多, 戊辰白虎, 合木
- 정신병으로 몰아 붙일 수 있음
- 좋게 말하면 편관격이지만 格이 없는 것이다
- 이 사주에서 편관을 대항하는 것은 비견이므로 집안식구들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

辛乙辛巳

巳未未亥 乾

- 여름의 편재격은 乙木만 투간되지 않으면 木生火 火生土가 될 수 있다
- 乙木이 旺하면 破格이지만 財가 旺하다면 乙木이 상신(相神)이 되므로 成格이다
- 목토편재격(木土偏財格)이 월령분야 乙木이라면 破格으로 재주가 없다
- 財가 重하므로 식상을 용신으로 잡을 수는 없다
- 官이 너무 약한데 인성이 있으면 官이 설기 되므로 官을 용신으로 잡는데 주의를 요한다 ⇨ 官이 너무 약하므로 용신으로 잡을 수 없다. 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 없는 것을 용신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정신의 문제로 없는 정신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없는 용신을 전혀 쓰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용신은 인성이며 억부용신으로 더 이상 格을 논할 수 없다
- 비겁이 財와 합해서 財로 바뀌면 남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지만 비겁이 財와 합해서 비겁이 되면 남을 이용해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당하게 된다
- 官格, 官用은 인성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財格은 식상이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巳火가 억부에 위배가 되더라도 亥水에 의해 식상이 剋 받는 것은 나쁜 것이다
- 비록 억부용신을 썼다고 하더라도 格의 구도를 깨는 건 나쁜 것이다

甲壬丙丁

辰子午巳 乾

- 正編 혼잡으로 비견은 상신(相神)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건들면 안된다
- 편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官이 약하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辰土 官의 쓰임새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함 ⇨ 직장이나 점쟁이나 등..
- 식상이 용신
- 월정재에 정편 혼잡으로 일정기간 직장이나 지역에 봉사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것
- 식신운은 잘나간다는 소릴 들을 뿐 운이 좋아서 돈을 번다는 의미는 아님

丙乙丁己

子卯丑酉 坤

- 식신생재라서 그냥 자영업이라 할 수 있는데 상관이 있으므로 품목 한 개만 더 추가하면 된다
- 신약 편재격인데 화로 격용신을 쓸 수 있다
- 財旺日干旺으로 상당한 부자사주

丙甲壬戌

寅子戌戌 坤

- 無官이므로 官에 대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되지만 집착이 강하므로 괜히 고상스러운척, 정의로운척 한다
- 억부로 가서 인성용신을 쓰는 사주인데 관이 없으므로 財格에 대한 용신을 쓰지 못한다 ⇨ 사회적 방어가 안되고 일간만 방어하게 된다
- 자식이 정신 지체아 임

己丙丙辛

丑戌申亥 坤

- 편재격에 정재가 투간되었다 ⇨ 병신육갑
- 월 편재라 사업을 해야하는데 정재가 투간 되었으므로 돈 욕심만 있다. 편재에 대한 것은 마음에만 남아있고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도는 사람이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남자라면 처보다 첩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丙辛습으로 맞바람에 관성 충까지 맞았음
- 土金이 많은 사주이므로 식상을 용신으로 쓸 수는 없고 인성을 써야 하는데 인성이 없으므로 인성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다
- 망송 메이크업 프리랜스

丙壬癸丙

午午巳午

- 金用神으로 크게 쓰는 건 아니다

辛壬甲辛

丑午午丑 坤

- 官格은 신약하므로 90%가 인성 용신이지만 財格은 내가 친 것이므로 財를 중심으로 용신을 잡아야 하는데 식상이나 관성이냐 그리고 안 되면 인성비겁이 되는데 여기서 억부로 넘어가게 된다

식신격

●식상과 개업

- 비겁인 나, 재성인 공장, 돈, 가게라고 한다면 식신은 이것을 가지러 가는 수단, 판단이며 만약 식신이 없고 財만 있다면 수단이 없는 것이므로 가게만 얻어놓은 상태이므로 손님이 없는 것과 같으며 특히 인성運이면 손님이 없는 것이므로 식신격에 인성運이 화려한 개업과 동시에 가게가 텅 비게되는 것이다.
- 식상은 있는데 財가 없는 것은 수단은 많은데 가게가 없는 것으로 연구중, 공부중의 의미이다.
- 식신생재(食神生財)에 있어서 식신은 상품, 전시, 노력 중, 희망을 향해 가는 중, 희망이 많은 시절의 의미인데 소원이 내 가게, 공장 차리고 버스 한 대 사는 것이 된다
- 식신이 없고 財만 있다면 공장만 있고 수단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을 하라고 권유함
- 식상이 다한데 財가 없어 인성운에서 식상을 제하는 사주라면 물주나 어른을 구해오라고 권유를 함
- 손님이 없거나 탈나면 손님이 없다
- 식신격이 財를 얻으면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 財가 없으면 후원자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것임
- 식상만 있고 財가 없다면 준비중인 것이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인데 재운에 오면 개업을 하겠지만 비겁이 다하다면 폐업,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식재격(食財格)이 食財를 만나면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파는 것이지만 食格이나 財格이 인성용신이거나 인성격이 식상이나 재성을 만나면 개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전시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예술, 학문을 파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컨설팅 공간, 사주카페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람, 마음을 파는 것이다. 식당이라면 밥 맛 좋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기에 누가 있으니 잤다라는 의미임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인성격이 식재용신이든 식재격(食財格)이 인성용신이든 食財가 들어오면 개업을 하러 나가게 된다
- 食格이 財運에 개업하는 것과 財格이 財運에 개업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지만 食格은 財運이 되어야 財格은 食상운이 되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 개업은 食格보다 財格이 먼저 하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손님이 오지 않으므로 財格은 食運에 개업을 해야한다
- 식재격(食財格) 인성용신은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 후 개업하므로 늦어지는 것이며 면허를 얻은 후 개업도 해당이 된다. 선전방법은 이름 알리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 식신격은 준비 다 하고 재운에 개업하고 財格은 財運에 개업은 하지만 가게부터 내는 것이고 인성격, 인성용신은 食財운에 개업을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자격화를 한 후 개업을 한다. 흥하는 운따라 가는 것이며 비겁이 많은 것만큼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 인성격은 다른 격보다 4개월 더 늦게되며 地支로 運이 들어오면 갈등이거나 더 늦어지게 된다
- 天干인지 地支인지 숨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하는데 숨이 들어오면 일단 마음이 가는 것이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통변을 해야한다
- 食상이 많하면 장소를 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할 일이 생겨서 개업이 늦어지며 인성이 많하면 품목을 정하지 못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장소로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갈까 고민한다. 食상은 집과 먼 곳으로 개업을 하고 財는 타향에다 개업을 하다
- 인성용신자들은 개업을 해도 얼마하고 가까운 곳 에 할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식 공간을 판다
- 요즘 財格에 인성용신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영업, 컨설팅, 기획, 마케팅 관리이다
- 식신월령 편재격 인성용신 ⇨ 기술인 편재, 개업인 食상, 관리인 인성 세 가지를 다 하는 팔방미인. 기술직종 영업, 기획, 마케팅 개업
- 生地月의 格은 따질 것이 많으며 그렇게 하면 방해꾼까지 잡아낼 수 있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식신, 식신격, 식신용, 식신과다, 식신弱 각각의 모든 의미에 대한 고찰을 충분히 해야 한다
- 특히 식신용신의 용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制殺이나 生財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다 틀리며 制殺이라면 殺에 대한 이야기를 生財면 財에 대한 이야기를 재휼인이라면 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함
- 재성용신이라도 군겁쟁재(群劫爭財)로 써먹지 못하고 식신만 들어와야 하는 사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관격

○기타통변

- 威格이 되면 사회성, 국가관을 알 수 있고 성격을 알 수 있고 格의 활용성으로 살 수 있다.
- 격국의 고저는 역용(逆用)과 순용(純用)에 따르는데 만약 吉神이 역용(逆用)이 된다면 역부용신이 된다
- 희신은 복덕의 기준이 된다
- 사주가 格이 서 있다면 財官을 목적으로 살게되고 역부로 넘어가면 財官이 목적이 되고 食印이 수단이 되어서 體와 用이 나누어지게 된다
- 식상의 구분은 인성과 재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서 가리게 된다
- 식신은 식신생재(食神生財) 하나 밖에 없다
- 식상이 되었다면 최종 목적은 재성이 되는데 식신생재(食神生財)는 직장을 다니다 개업을 의미한다
- 格과 格用에는 신살이 절대 개입을 하지 않으며 역부용신으로 넘어갔을 때 신살이 개입한다
- 財官은 물건이며 목표이므로 沖 맞으면 손상이 되며 印食은 수단이다
- 신살이 개입할 정도의 사주는 초년 大運이 格이 되어 버린다(13세 전후)
 - ▶ 초년에 없거나 旺한 五行이 들어오면 그 五行에 대한 관념이 생각에 박혀 버린다
 - ▶ 초년이 관성인데 중년이 식상운이 되었다면 못쓴다
- 格이 서 있다면 원진이건 무엇이건 아무 문제없이 잘 산다
- 정관격이 편재가 투간되면 破格이다 ⇨ 용신을 치므로
- 식상이나 인성이 없다면 편인이나 상관으로 본다
- 식상다봉(食傷多峰)과 파료상관(波了傷官)이 싸우면 파료상관(波了傷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官)이 이긴다

- 강한 陽일간과 약한 陰일간이 싸우면 약한 陰일간이 이긴다
- 無財에 비겁 多에 비겁운이 들어오면 별문제 생기지 않지만 財가 들어와서 돈을 벌면 목숨이 위험하다
- 편인이 되는 첫째 조건은 과다이다
 - ▶ 제일 먼저 財가 필요하다. 財克印과 財生官 하기 위해서
 - ▶ 財克印만 하고 財生官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식상만 살렸으므로 자기 자식만 껴안고 남편은 버려 두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남편 직장 그만두고 부인 돈 벌여오라고 하면 학용품 값만 벌여오는 여자가 된다
 - ▶ 인성過多에 財克印의 특징이 아르바이트하는 여자다. 官을 洩했으므로 정식 직장을 못 다니고 아르바이트만 하게되는 것이다

●식상의 통변

- 일간이 根이 없이 인성으로 旺해졌다면 식신격이 상관격이 되어버린다
 - ▶ 따라서 도식(倒食)된 사주는 官을 치게되는 것이다
- 식상이나 인성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만 안되면 포기한다 ⇨ 官이 포기하는 법은 없다
- 식신은 有根해야 하며 상관은 有根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 인성이 많아서 식신용신은 그냥 상관이 된다
 - ▶ 상관이 안되는 일만 풀라 다니면서 하게된다
 - ▶ 식상은 물건이 아니며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왔다갔다 하는 것임
- 상관은 용맹 무모한 것이고 대범한 것은 식신이다
- 상관은 인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 매우 약해서 인성으로 눌러줄 필요가 없는 것은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다
 - ▶ 인성으로부터 온 상관은 식신이다
 - ▶ 見官이나 겁재를 설기하지 않는다
- 일간으로부터 온 식신과 인성으로부터 온 상관을 둘 다 식신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같다고 할 수는 없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상관패인(傷官佩印)은 官으로 가는 것이다 ⇨ 의사, 설계사, 변호사 사회의 가장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다
- 인성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냥 상관이 되므로 상관의 폐단이 시작이 된다 ⇨ 見官, 겁재를 설기를 한다
- 식신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여지동(干與支同), 생지동주(生地同住)이다 ⇨ 甲寅, 丙寅
- 壬辰에 壬水가 식신이라면 子水가 오면 상관이 될 수 있다
- 식신, 상관, 편인, 정인은 얼마든지 변하고 상처 입을 수 있다
- 일간이 신약한 식신격은 낀 세대로 나로부터 자식으로 확 내려가므로 자식을 이롭게 하는 세대이다
- 상관이 식신이 되어야 진짜 상관이 된다
 - ▶ 정인이 있든지 숨이 되어야 식신이 된다
 - ▶ 상관계에 숨겨져서 식신이 된 사람은 남자한테 돈 타 쓰는 사람이다 ⇨ 인성은 윗도리고 식상은 아랫도리 이므로
 - ▶ 겁재가 생할 때 상관이 상관된다
 - ▶ 상관견관(傷官見官)의 해는 도망갈 구멍만 찾아놓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 우기거나 거짓말 시키면 됨
- 상관이 상관이 되었을 때는 官이 있던 없던 천다고 봐야 한다
- 겁재가 있으면 큰아들 역할을 하게된다
 - ▶ 겁재는 행동대장으로 집안에 일이 있으면 자신이 희생하고 행동해야 한다
- 식신을 겁재가 생하면 상관이 된다
 - ▶ 친구가 나쁜 놈이다
 - ▶ 겁재가 식신을 상관 만들어서 상관견관(傷官見官) 시키므로
- 겁재가 상관을 생할 때
 - ▶ 겁재가 어떤 짓을 하고 상관을 생했는지 알아야 함
 - ▶ 겁재가 정인을 설했다면 엄마가 드러누워 있는것임
 - ▶ 정관과 숨을 한 겁재라면 친구 따라가서 바람이 난 것임
 - ▶ 겁재가 財를 훔치고 상관을 생했으면 못 먹어도 고우 ⇨ 꾸준히 일 해도 결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함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 겁재가 상관을 만들어서 상관 때 직장을 안다니느냐 돈을 안버는데 왜 고민해야 되는가하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며 겁재만 해결하면 된다
- ▶ 특히 亥水가 겁재면 亥水가 다 빠져 나가므로 방법이 없다. 亥子丑으로 亥卯未로 빠져나가 버림
- ▶ 정관과 숨된 겁재가 상관을 生하면 술집여자

●식신을 살피는 법

- ①도식(倒食)이 당했나 봐야한다
- ②일간이 신약하지 않나 살펴본다
- ③식신 자체의 왕쇠강약(旺衰強弱)을 살펴본다
- ④재성으로 갔는지를 살펴본다 ⇨ 재성으로 설기가 심한 사람은 평생 살이 안 쪼다
 - ▶ 위의 상황 중 해당하는 분야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곳에서 통변을 하면 되며 식신은 대단히 예민해서 조금만 잘못되면 상관이 된다
 - ▶ 재성에 의해 설기가 심해서 상관이 되었다면 시어머니나 아버지가 죽일 놈이 된다고 생각한다
 - ▶ 인성 역시 이와 같이 통변이 가능하다 ⇨ 정인은 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財에 의해서 剋 받아서 편인이 되었다면 자기규칙을 가지고 있고 음흉하고 자기통제를 잘하는 사람임
 - ▶ 편인도 旺한데 재성으로부터 制를 받으면 정인으로 갈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官으로부터 온 것이 되므로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올바른 식신의 조건

- ①일간이 신왕할 것 ⇨ 나로부터
- ②식신이 통근(通根)할 것 ⇨ 실력을 쌓아서
- ③일간이 재성으로 갈 것 ⇨ 범위를 넓힌 것으로 재성이 많으면 두루 두루 쓸데없이 넓어져서 상관이 되어버린다
- ④식신제살(食神制殺) ⇨ 制殺하지 못한 식신은 자신의 성을 가지지 못한다. 여기에서의 식신은 연장을 만드는 식신으로 로비, 군수품 납품, 유통, 중계 등으로 간다

●나쁜 식신의 조건

- ①일간이 無根한 것
- ②식신이 약한 사람
- ③식신이 財로 가지 못한 사람 OR 재성이 없는 사람 ⇨ 한가한 선비
- ④制殺을 못할 때 ⇨ 군인이 없는 성으로 자기는 죽도록 고생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과중과로로 쓰러진다
- ⑤식신태왕(食神太旺) ⇨ 인성으로 살짝 된 것인데 약간 해서 전시하러 나간 격으로 두루두루 잘 알고 전시하러 나가는 것임
- ⑥인성태왕(印星太旺) ⇨ 식상이 용신인데 진로가 꿈과 현실이 다르다. 인성이나 관성運이면 돈 못벌고 작품이나 만들고 전시 한번 못함. 식신격과 인성격이 겹비된 것임

●식신격의 기신

- ①편인 투간 ⇨ 식신격이 破格되면 엄마, 아버지를 일단 잡아먹고 출발하며 병신이라도 만들고 시작한다
 - ▶ 항상 거리가 중요하다
 - ▶ 편인이 일간을 生할 때 ⇨ 도식(倒食)을 안한다
 - ▶ 편인이 일간의 根이 될 때 ⇨ 재성과 타협을 한다
 - ▶ 편인이 겁재를 生하거나 겁재의 根일 때 ⇨ 陰일간이 대단히 많은데 예를 들어 乙木 일간에 甲木 겁재가 亥水를 根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때 亥水는 정인이 아니라 편인 역할을 한다
- ②비겁 투간 ⇨ 단 無財 사주는 좋다

●식신과 상관의 고찰

- ①식신 : 일간 → 식신 → 물건 ⇨ 물건을 변화만 시키는 순수한 사업, 가공, 생산, 제조
- ②상관 : 정인 → 상관 → 재, 관
- ③食神生財가 일간으로부터 왔다면 직장과 소속이 있고 일정한 통제를 받게된다

- ④식신은 고향 물건이나 주위의 보이는 것들을 팔지만 상관은 싸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 물건도 안 가져다 쓴다
- ⑤상관은 목적이 정인에 있고 정인은 官을 겸하므로 정인으로부터 온 상관은 官을 겸하며 여기서 官은 직장이 아니라 선거, 명예, 국가가 인정한 도둑 등을 의미한다
 - ▶ 일반적인 관의 의미가 아닌 국가로부터 명예와 더불어 부여된 관을 의미함
- ⑥상관이 官을 췌하지 않으면 수줍어하고 미어터지고 심심한 사람으로 식신보다 못하고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된다. 官을 못 췌으므로 자신의 의견 또한 발표 못한다
 - ▶ 상관은 官을 쳐야 상관이지 官을 치지도 못하는 상관을 정인이 가서 치면 그야말로 한가한 선비 밖에 안된다
 - ▶ 상관격에 官도 없는데 인성이 가서 官을 치면 한가한 선비로 아무 소용없다
 - ▶ 상관이 官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정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을 건드린 것이 된다
 - ▶ 見官 하지않는 상관이 잔뜩 있는데 인성이 있다면 골치 아픈 경우로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의 정당한 요구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 ⑦식신이 官을 단체로 달려가서 치면 폐해가 엄청나며 죽음을 의미한다
- ⑧식신생재(食神生財)가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상관생재(傷官生財)는 시간차를 생각한다
- ⑨상관생재(傷官生財)는 月運을 눈 여겨 봐야하며 적이 누군지 모르므로 적에 대한 감시를 잘 해야한다

●식신이 상관될 때

- ①식신이 多할 때 ⇨ 官을 췌해서 상관이 된것임. 직장이 더러워서 나온 것
- ②도식(倒食) 당할 때 ⇨ 官을 制하지 못해서 상관이 된것임. 직장생활에 못 견뎌서 나온 것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③일간이 無根 ⇨ 식신이 나와 상관없이 혼자 논다. 자식이 말을 안들음

④재성이 過多

✓이러한 상관들은 상관의 폐허가 시작된다

✓정인 → 상관 → 財, 官 으로 간 진짜 상관은 다른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때 기신은 겁재, 상관, 재성이다

●상관의 폐허

①겁재를 본 식상

②관성을 본 상관

●기타

- 상관패인(傷官佩印)은 정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정인이 관인상생(官印相生) 하는 것임 ⇨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만약 40대에 재운이 들어온다면 개업을 할 수 있다. 교수, 판사 같은 것을 하다가 변호사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정관예우를 받는 팔자이다

- 상관상진(傷官傷盡)도 정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정인이 상관을 맞가게 한 것이므로 재성으로 곧 죽어도 가게 되는데 단 소속은 없다. 하지만 못먹어도 고우다 ⇨ 인성이 다하므로 자격조건이 너무 많고 돈 안 벌면 어때 하면서 그냥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동네 사랑방이다

- 가상관(假傷官) ⇨ 旺한 진상관(眞傷官)이 재성에 의해서 약한 상관이 된 것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상관인 아닌 재성의 기운으로 財生官을 한 것임

- 변진상관(變眞傷官) ⇨ 상관이 인성 때문에 약한데 겁재가 중간에서 상관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다

- 상관가살(傷官駕殺) ⇨ 상관은 약하고 관성이 왕성할 때로 식상으로 논할 수 있는데 관성을 이용해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이다(브로커, 제 2 금융권). 하루 벌어서 3년 쓰기도 하고 어느날 갑자기 유명해진다. 비교적 편한 명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이러한 상관의 작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살이 개입을 한다
 - ▶ 식상에 개입하면 방법의 차이가 생긴다 ⇨ 식상이 숨을 맞으면 빨리 할 것을 늦게 하고 沖을 맞았으면 늦게 해야하는데 빨리 하는 것이고 원진(怨憤)이면 싸워가면서 하는 것이다
- 財官은 끼는게 한 개지만 食印은 3개가 한 꺼 번에 달라붙으므로 골치 아프다 ⇨ 財관격에는 財官이 목적이므로 신살이 개입하지 않으며 잠시 멈출 뿐이며 食印에 신살이 개입해서 하루 아침에 신세가 조지든지 하게된다
- 따라서 官格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려면 재성이 인성을 치거나 해서 관인상생(官印相生)을 막음으로 해서 물건이 정신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의지력을 꺾어놓은 것이므로 신살이 마구 침해를 한다. 따라서 官格이든 財格이든 인성이나 식상을 절대 건드리서는 안되며 인성과 식상을 건드리면 바로 사고가 난다. 官格에 관乙 건드리면 사고가 나도 마음이 편하다.
 - ▶ 야근을 하라고 하면 관성이 沖 맞은 사람은 하지만 인성이 沖 맞은 사람은 집에 가야 하는데 계속 집착을 하고 생각을 하게됨
 - ▶ 상관견관(傷官見官)이라면 官 흠집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만 財克印은 마음이 집에 가고싶어하게 된다. 마음이 곧 움직이는 것이다
 - ▶ 상관견관(傷官見官) 했는데 財克印까지 했다면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라고 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함

乙丁庚辛

巳酉子丑 坤

- 편관격이므로 식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식신이 있으면 제살태과(制殺太過)가 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제살태과(制殺太過)가 되었다면 인성이 용신이 된다
- 편관격에 식신이 용신이 되면 살생필설이 되고 인성이 용신이 되면 살인상생(殺印相生)이 된다
- 다음으로 편관격은 상관합살(傷官合殺)이 있는데 상관합살(傷官合殺)이 되면 직업과 가정의 폐허가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버린 사주는 세가지다 선택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 편관을 살펴봐야 하는데 강하기는 한데 旺하지는 않으며 인성으로 할 것인가 식신으로 쓸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편관격에 식신이 용신이며 그 다음으로 일간을 보아야 하는데 子月에 巳酉합까지 되어 일간이 약하므로 B급이다. 따라서 인성이 필요하다. 만약 상관까지 필요할 경우면 C급이 되버린다
- 일단 운에서 인성과 식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인성은 억부용신 식신은 격용신이다
- 大運에서는 월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본다 ⇨ 格과 用에 미치는 영향을 말함
 - ▶ 甲辰大運의 경우 인성이므로 용신이고 辰土는 格用이므로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다 식신제살(食神制殺) 하고 있는데 상관아와서 官과 타협까지 했으므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아이의 경우는 키가 크다
- 다음으로 大運에서는 일간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말함
 - ▶ 甲辰大運의 경우 인성이므로 남편에 대한 받는 것에 대한 검사하는 기간이라는 이고 상관은 편관과 합이 되었으므로 바람이 나는데 일지하고도 숨이 있으므로 확실하다
 - ▶ 사주에 상관과 편관이 합하면 바람이 난다고 하지만 사주의 구조가 중요한데 이 사주의 경우는 財가 혼잡이므로 가능성이 충분한데다 전 지지가 숨이 되었고 濕하므로 더더욱 충분하다
- 辛巳年을 살펴보면 편재가 왔으므로 인생에 회의감을 느끼며 아이들의 경우는 놀러 다니는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 안가는 건 상관견관(傷官見官)이며 아저씨는 여행 간거고 노인은 치매이다
 - ▶ 편재가 깨서는 안될 乙木을 乙辛沖으로 乙木을 깨므로 木生火를 해주지 못하므로 인성이 고장이 나므로 남편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까지 고장이 난다
 - ▶ 地支의 겹재는 분가, 독립 등을 의미하므로 독립을 어떤 식으로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하는가를 찾아나서야 하는데 일지와 습이 되었으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年의 식신과 습이 되므로 時의 식신함은 자식을 데리고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年의 식신은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친정에다 맡겨놨다라는 의미임. 다시 말해서 자식을 어디다 맡길지 눈치를 보고있는 중임

- 財生殺 되어있으므로 이혼 요구는 남편이 하게된다
- 편관에 편인 용신으로 화끈한 여자로 치사하게 위자료 요구하지 않는다
- 이 사주로 봤을 때 남편은 인성과다(印星過多)인데 심심해서 같이 살기 힘들므로 이혼하기 잘했다
- 아래 남자와 일지가 합이므로 내 것이길 바라고 설사 내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노는 꼴을 보지못함
- 官이 습이 된 사람은 의처, 의부증의 운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한다

壬乙丁辛
午巳酉丑 乾

壬癸甲乙丙
辰巳午未辛

- 위 여자와 대화가 통하는 남자임
- 편관격이 局을 이루어서 丁火 식신이 용신으로 巳와 午에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단히 좋다 ⇨ 살생필설(殺生筆舌)의 운으로 일장단판이다
- 초년에 식상운으로 왔으므로 食傷으로 가게된다
- 위 여자와 살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일간을 살핀다
- 無財에 사주는 식신이므로 착한 사람인데 운에서 상관이 왔으므로 식상에 無財하므로 바람 피는 사람이지만 이혼하는 사람이 아니다 ⇨ 식상에 無財 사주의 특징으로 이혼안한다. 재운에 바람 피는 것이 들

킨다

- 이혼을 하려면 ⇨ 식상은 아무리 쳐봐야 재성이 없으므로 이혼은 하지 않으며 財가 들어와야 이혼을 한다. 이 사람은 3년을 기다리라고 이야기 한다
- 辛巳年의 경우 편관은 이혼은 아니며 구설에 불과하다
- 부부궁은 무조건 일간용신으로 보는 것이다

甲己癸

寅未卯 坤

- 위 사람의 부인
- 일간이 세력으로 木局으로 신앙이 됨
- 無財 남자와 무관 여자가 만나면 서로 신경 안쓰고 산다 ⇨ 이혼해 봐야 나중에 다시 만남
- 無官에 比多한데 比多가 이혼의 조건이지만 無官이므로 비다 하더라도 官에다 시비 걸 일이 없으므로 이혼과는 거리가 멀다.
- 문제는 올 해 官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다
- 無官에 比多 한 사주로 남편이 바람 피다 들키면 너 나가서 늙어서 들어오라는 식으로 맞받아치며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임
- 위의 남자 사주가 財運이므로 바람 피는 것이 들켰는데 여자 무관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일단 이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의 결정은 습과 원진(怨嗔)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합도 원진도 없으므로 결국 이혼을 하게된다
- 궁합에 있어서 보완은 五行보다는 조후가 우선이다
- 남자 無財 여자 無官 사주는 財나 官運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壬辛壬甲

申酉申辰 坤

- 먼저 정인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정인이 없으므로 상관이 나라고 인정할 상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상관이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두번째로 財를 봐야 하는데 財로 가므로 財格이 된다. 따라서 상관을 財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 순수한 식신과 상관만이 기신이 있지 식상은 기신이 없으며 官만 안 오면 됨
- 식상, 재성, 관성격은 기신이 없다
- 식상격은 상관이 움직여야 뜬다. 또한 식상은 자신이 움직이기도 하고 주위 환경이 움직이기도 하므로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
- 식상은 인성이든 관이든 오면 한방 터뜨리는데 어떻게 재로 연결되는가가 문제이며 관운이라면 상관견관으로 이혼이나 남편 죽고 난 후 돈 버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
- 식상이 약하면 겁재도 괜찮다. 겁재가 좋은 것은 인성이 많고 식상이 약할 때이다
- 가상관(假傷官)으로 식상이 약하고 재성이 많을 때는 겁재는 오히려 군비쟁재가 되어버린다

戊戌乙乙

午辰酉巳 乾

- 신왕상관격으로 상관을 정인으로 대하지 않고 편인으로 승한것인데 어쨌든 상관을 잡은 것인데 이 사주 상으로 상관을 살려줘야 하는데 편인의 승은 좋은 작용이 아님
- 상관을 살리려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 식상이 되 버렸음. 통제를 받는 상관으로 상관역할을 못하므로 술을 한잔 먹어야 상관짓이 나옴
- 乙木의 생명력은 대단하다. 甲木은 세 개가 있으면 한 개만 쳐도 다 쓰러진다. 따라서 상관견관(傷官見官)을 해도 직장을 완전히 때려 친 것이 아님
- 상관이 인성에 의해 제압을 당했으므로 상관이 되지 못하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의미이며 財가 없으므로 관 또한 한계가 있다. 자영업도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가능한데 통제 하에 가능하다

- 일간이나 비견이 상관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 편인의 상관에 대한 극이 심한 편이므로 金克木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상관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므로 상관도 아니다

✓격을 용신으로 썼을 경우 희신 쓰기가 힘들다

✓인성격이 관성이 목적인데 관성이 왕해 버렸다면 목적이 나를 해꼬지 하므로 인성을 용신으로 쓰게되면 지독한 공부벌레에 5시면 땀하고 들어오는 사람으로 관성, 재성이 기신이고 식상이 용신될 수도 있는데 인성격의 원래 목적이 관성이므로 식상이 관성을 친다는 건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성과 식상은 참으로 예민해서 모든 것이 기신이 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잘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인성격은 관성이 기신이 되어서 식상이 오면 간지, 합, 충, 원진을 살펴야 하며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우울증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丙戌辛辛

辰午卯亥 乾

- 상관이 통근(通根)이 안되어 있으므로 식신 되어버렸고 재성이 용신이고 희신이 식상이 되는데 정관격이므로 정관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아야 하므로 天干 地支가 다르다. 따라서 地支 酉金은 안되지만 辛金은 金生水 하므로 가능하다
- 뿌리 없이 떠 있는 상관은 직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가는 것이다
- 상관이 죽었다는 것은 평화주의자며 사고 치지 않는 사람으로 큰 발전을 할 수 없다
- 午火에 의해 상관이 완전히 늘렸고 상관이 두 개 든 세 개 든 根이 없으므로 관을 치지도 못하고 상관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관이 되어 버렸고 친한 사람을 만나거나 한 잔 먹었다든지 하는 통제가 되지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상관성향이 나온다

乙甲壬丙

亥午辰午 乾

- 겁재까지 동반한 상관이며 年과 일지 중 일지상관을 위주로 봐야한다
- 見官하지 않고 生財만 했고 일간이 근하고 상관생재(傷官生財) 했다면 식신생재(食神生財)와 같은 것이며 만약 사화가 있으면 정말 식신생재가 되는 것이다
- 만약 상관견관(傷官見官)이 있다면 더 크게 클 수 있었는데 목표가 없는 것이므로 억울하거나 내가 정말 무너뜨리거나 하고싶은 일이 있어 일을 터지게 만들어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없다
- 陽干이 떠서 陰干에 뿌리를 내렸다면 혼잡은 아니며 陰干이 떠서 陽干에 뿌리를 내렸다면 혼잡이다

편인격

○기타통변

- 財格에 인성용신 ⇨ 얼마나 벌 것인가의 財格과 무엇을 할 것인가의 두 가지 다 고민하므로 삶의 질을 따지면서도 돈을 번다
- 인성격에 재성용신 ⇨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재성용신이므로 돈이 없으면 못한다
- 일주가 극약(極弱)하고 상관견관(傷官見官)이 대칭을 이룬 사주 ⇨ 집을 떠나 유통 무역업을 하며 아내 단속을 특히 잘 한다 ⇨ 시골처녀나 중국 교포를 데려다 사는 사람으로 아내가 절대 똑똑해서는 안되는데 財生官을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 일장단관 ⇨ 辛금이 甲, 乙을 잘 제어하고 있거나 己土가 壬, 癸水를 잘 제어하고 있는 사주로 혼잡되면 대단히 곤란하다
- 상관이 木이면 의류업, 토건업 등 생산업에 종사하고, 火면 전기나 전자이며, 土면 골동품, 옛날물건, 여행 등을 하며 金이면 군수품, 장신구 등을 한다

○비견이 편판운을 맞이했을 경우

- 비견이 희신일 경우 : 귀인이 떠나가므로 직원이나 동업자가 자신을 떠나는데 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나게 된다. 이럴 때 죽을 운의 사람과 같이 차를 타게 되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게 된다
- 비견이 凶神일 경우 : 면제, 구제를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문상문병을 가게되면 가만히 있는데도 추대를 받는다(길이 나므로 땅을 팔라고 한다든지)
- 비견이 平神일 경우 : 凶神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견이 용신인 사람

- 식상이 약하면 겹재가 희신 역할을 하는데 이때 겹재를 치면 신세 조지는 格이다

- 식상과 연결된 겹재는 절대 치면 안된다 ⇨ 비겁을 치면 財가 살아나 인성을 치게되어 아버지 초상나는 수가 있고 낙향을 하게되거나 문서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식상용신

①관살이 重해서 식상용신을 썼을 때 ⇨ 식신이 格用(상관용신은 원래 없다. 상관加殺이라고 한다) ⇨ 식상 용신에 格用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 官으로 간 것임(정치계의 거물)

- ▶ 식상용신이 식신생재(食神生財) 한 것 ⇨ 격국용신, 財로 간 것(경제계의 거물)
- ▶ 인성운이 위험하다 ⇨ 딸이 안되는게 살인상생(殺印相生)이 좋아야 하는데 심란해진다(生長收藏이 필요, 위치나 生의 관계에 따라 기신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음) ⇨ 용신에 대한 기신이지 관살이 重하다는 格에 대한 기신은 아니다
- ▶ 인성운은 용신에 대한 기신이지 관살에 대한 즉 格에 대한 기신이 아니므로 정신자세를 떨어뜨린 것이 되므로 실수만 안하면 되는 것이다
- ▶ 재성운 ⇨ 格과 용신 한꺼번에 떨어뜨린다(용신을 洩하고 관살을 生하므로)
- ▶ 큰 인물일수록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은 인물일수록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중간 인물들은 재성과 식상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면서 한 해를 보낸다
- ▶ 이런 상황에서는 일간용신(억부용신)이 얼마나 튼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②財가 있어서 식상용신 한 경우

- ▶ 비겁이 기신 ⇨ 비겁이 財를 치면 목적 없는 수단이 되어 버리므로 목적이 없어진 것이 되어 회사가 없어진다던가 취직하러 갔는데 회사가 사라졌다던가 하는 현상이 나타남
- ▶ 용신과 格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임
- ▶ 인비(印比)가 태왕(太旺)하거나 無財, 無官할 때 식상용신은 식상이 格用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많이 떨어지게 된다

●식상용신의 조건

- ①관살이 旺한데 식상용신을 쓸 때
 - ▶ 일간이 根이 있어야 한다
 - ▶ 일간이 약하지 않아야 한다
 - ▶ 식상과 관살의 힘이 균등하지 않으면 일간이 아무리 甲寅으로 서도 일간은 약한 것이다
 - ▶ 식상의 작용 ⇨ 일간에 대해서는 보호, 財에 대해서는 생재(生財), 殺에 대해서는 가살(加殺)이나 제살(制殺), 인성에 대해서는 설기
 - ▶ 신약하고 식상과 殺의 기운이 비슷할 때는 식상운이 좋다
- ②식상용신인데 財가 重한 경우 ⇨ 傷盡(상진)된 것임 財로 간 것
 - ▶ 부자 속에 가난한 자(난 기자인데 친구들은 재벌 등)
- ③관살이 重해 식상 용신인 사람 ⇨ 관공서에서 자격증을 준 사람
 - ▶ 식상생재(食傷生財) ⇨ 관공서에서 발주를 받은 사람
 - ▶ 인비(印比)가 태왕(太旺)한 사람 ⇨ 관공서에서 발주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하청한 사람
 - ▶ 丁巳는 약하고 丙午는 강하다 ⇨ 丁巳에서 丁은 格 취급하지 않는다
 - ▶ 壬子는 강하고 癸亥는 약하다 ⇨ 癸亥에서 癸는 格 취급하지 않는다

●인성의 등변

- 인성이 旺한데 재성운이 올 경우는 공부라기 보다는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하며 財克印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고민만 하게되고, 財克印이 지나치게 되면 부모원망, 종교 갈등, 인생회의 등을 하게된다
 - ▶ 財라는 현실이 印이라는 과거를 친 것이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거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확실히 印을 치게되면 오히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다(생각할 대상을 소멸시켜 버리므로)
- 비겁과 비겁이 싸우면 재성이 다치는데 재성이 다칠 경우 재성이 무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엇을 하고있는지를 봐야한다. 만약 인성을 制하고 있는 재성이었다면 인성이 다치고(비겁이 인성을 洩했으니깐) 재성이 관성을 生하고 있었으면 재성도 다치고 관성도 함께 다친다. 재성이 식상을 洩하고 있었다면 식상의 길이가 막혀 식상이 다친다. 재성이 높고있는 상태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

- ▶ 寅申沖은 잘되자고 싸우는 것이다 ⇨ 申中 壬水가 나와 金生水 水生木을 하므로 끝장을 보지는 않는다. 癸 관계이면서도 결국 生을 하게 되므로 그 결론을 끝까지 보아야만 알 수 있다. 마치 럭비볼과 같다
- ▶ 卯酉沖은 결단을 내고자 싸우는 것이다 ⇨ 싸우고 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한번 돌아서면 뒤도 돌아보지 않으므로 단순하다

- 편인

- ▶ 편인이 편인이 되기 위해선 재성이 필요
- ▶ 재성이 없을 경우 효신(梟神)이 됨 ⇨ 도식(倒食), 劫災를 生, 官 剋洩의 세 가지 폐해

- 정인

- ▶ 官用에 신왕, 격왕(格旺) 해야 정인이 됨

- 위의 경우 외에는 인성격

- ▶ 직업은 언론, 출판, 문학인데 식상이 깨지면 시디 팔고 물건 팔러 다님

- 인성격의 命

- ▶ 인성격이 과해서 인성운으로 가면 임대업을 함
- ▶ 인성격이 과해서 인성운으로 가는데 역마운으로 가면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팔 수 있다
- ▶ 인성격이 재성운으로 가면 마음만 인성에 있는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음
- ▶ 인성격은 대학자부터 바닥까지 각양각색이다
- ▶ 인성격이 도식(倒食), 겁재생(劫財生), 관극설(官剋洩)이 없을 경우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명이다
- ▶ 인성격 인성用이라면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재성용신이라면 미래지향적으로 한가지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이

루어 내는 사람이다

- 도식(倒食)을 막는 경우

- ▶ 재성이 최고 ⇨ 재성이 있으므로 자체를 당하지 않는다
- ▶ 겹재로 식상을 생하는 경우 ⇨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타고났으며 모방의 천재이며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음
- ▶ 식상 스스로 대항하는 경우 ⇨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

◎인성에 따른 여성의 사랑

- 인성이란 官에서 나에게로 오는 통로이므로 인성이 없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

- 무인성(無印星)의 경우 상대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상대의 주위 환경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시어머니가 아프던가 시누이가 괴롭히던가 하는) 반드시 생기며 그러한 환경이 만약 없다면 상대를 믿을 수 없게 된다.

- ▶ 인성이 없고 官이 숨된 여자라면 의부증이라 보며 沖殺(一支沖, 官星沖)까지 있다면 싸우게 되고 원진살까지 있으면 평생 의부증이라 할 수 있다
- ▶ 원진(怨嗔)이 들어오거나 一支沖의 運이 오면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될 것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운이 들어왔다면 아버지에 “남자는 저런거야” 라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며 남편에게 잘해야지 아니면 남자는 도둑놈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 남성의 경우도 무식상(無食傷)의 경우 십대에 침범하는 운이 왔다면 아버지처럼 살겠단지 아니면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겠단 마음을 가지게 된다

- 인성다봉(印星多峰)의 경우는 남편의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개라는 뜻으로 밖에서 항상 조심하라는 잔소리를 하게된다

- ▶ 인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根을 가진 것은 인정을 받지만 다르게 떠있는 인성의 경우는 못믿는 것을 말한다
- ▶ 인성이 비겁을 생하면 남자를 바라는 것이다
- ▶ 天干에 根없이 떠있는 인성이 재성과 숨을 한다면 바람 뿜다고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원망을 하게된다(조심하라는 의심을 말함)

- ▶ 地支상의 인성의 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약 官과 습을 했다면 밖에서 위신을 세우고 다니라는 말을 하는 것(남성의 경우도 같이 통변가능)
- ▶ 인성과다(印星過多)로 관성을 설기하고 있는데 재성까지 끼면 남편이 무능력한데 시댁식구까지 끼어서 별어서 시댁식구까지 책임질 일(시댁 역시 무능력)을 하게 된다. 재성이 끼지 않으면 시댁과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남편보고 제사 지내라고 시댁에서 뭐라하지도 않는다
- ▶ 인성과다(印星過多)는 임대업이며 이런 때 재성이 끼면 돈 없어도 노는 사람이다
- ▶ 인성이 뿌리에 단단히 착근(着根)했을 경우 있는 상황 그대로에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 ▶ 인성이 中和되어 관인상생(官印相生)했을 경우 財剋印이 아닌 財生官을 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상황을 잘 봐야 한다 ⇨ 財生官하고 있는데 인성이 더 가깝게 되면 財生官으로 임마 돈을 빼서 남편 뒀더니 시어머니가 더 가지고 오라는 격(官印相生으로 남편 잘 얻었는데 財剋印으로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는 것임)

■ 식상과 정인의 정의

▷식신

- 일간으로부터 온다. 일간이 旺해야 한다(일간이 有根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짐)
- 일간 → 식신 → 재성 ⇨ 직장에서 사업으로 가는 수순
- 식신이 될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일간, 식신, 재성이 다 旺하면 최고이며 자손대대로 영화가 있다

▷상관

- 身 旺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지만 태약 해서는 안된다
- 정인에서 온 것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정인 → 상관 → 관성 ⇨ ①제도에 들어갈 수 있다 ②자격증 획득 후 개업
 - ▶ 식신격 상관 된 것과 상관격이 식신이 된 것은 풍모라든가 생각이 많이 다르므로 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함
- 상관 합殺은 크게 효과가 없다
- 식신은 비겁의 생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만 상관은 비겁의 생을 받아서 官을 친다 → 병든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는 격
- 겁재가 상관을 생하면 ⇨ 직장생활 하기 힘들다

▷편인

- 편인은 재성으로 합殺 시키면 어느 정도 좋다
- 재성으로부터 온다
- 재성 → 편인 → 官
- 威格이 안되면 官으로 가지 못한다
- 일간이 꼭 신왕할 필요는 없다
- 정인은 일간을 생하나 편인은 비견, 겁재를 생한다
- 官이 약하고 편인이 비겁을 생하면 그 여자는 남편이 도망가든지 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간다
- 편인이 있는데 天干에 비견, 겁재가 하나라도 떠있으면 바람난다

▷편인과 정인은 크게 다르지 않다

- 편인이든 정인이든 제대로 된다는 것이 중요하며 차이가 크지 않지만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둘의 구분이 점점 더 필요해짐
-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둘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으며 현대의 시대가 복잡, 다양해짐으로 인해 비견과 겁재가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비견이 지금은 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겠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모시지 않고 나가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른다(겁재는 당연히 떠난다)

己丙壬丁

亥午寅未 乾

- 상관이 근력이 없지만 겁재가 생해서 근력이 있음
- 겁재에 상관이 있으면 겁재가 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 財가 없으므로 殺이 오래가지 못한다 ⇨ 직장을 오래 가지 못한다
⇨ 소속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 인성을 가장한 양인격
- 辛巳년 현재 SK 과장으로 일하고 있음

壬癸甲乙丙

午未申酉戌

- 편인이 殺印相生의 용도이고 식상하고는 관련이 없다
- 편인이 식상을 剋하고 살인상생(殺印相生)을 하고있음 ⇨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자식은 위탁을 시키는 것임, 특별히 용신은 없으며 살인상생(殺印相生)을 하고있음

양인격

●관으로 成格이 될 경우

- 첫째 신왕해야 하며 다음으로 살왕(殺旺)해야 한다
- 살왕(殺旺)에도 조건이 있는데 根이 있는 것과 재성이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
- 財生殺이 부귀겸전으로 좋기는 하지만 財를 치면 구몰(俱沒)되어 버린다
- 殺이 약하면 음지의 대장으로 사기꾼 도둑놈 등이 된다
- 살격(殺格)이나 흉격(凶格)들이 한 가지만 무너져도 확 무너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

●양인의 成格조건

- ①殺이 있어야 하며 殺이 없다면 식상이 있어야 한다
 - ②신살양정(神殺兩停) 해야 한다
 - ③양인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 습도 沖도 하지 말 것이며 일간은 건드려도 상관없다. 단 五行의 성격상 丙午같은 경우 子午沖을 해야 火가 살아나므로 예외이다
 - ④양인이 인성을 기뻐하므로 財가 殺을 生해야지 인성을 剋해서는 안된다
 - ⑤양인격에 비겁용신은 있을 수 있어도 양인용신이라는 것은 없다
 - ⑥양인은 절대 財를 剋해서는 안되는데 財를 剋하면 財와 官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 ⇨ 구몰(俱沒)
- ✓편인이 沖 맞으면 충인(沖印)이라고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위조하는 것으로 양인과 매우 흡사한 역할을 하게된다
- ✓官을 剋하면 그 때만 나쁜 것으로 다시 회복이 가능하지만 財가 剋받으면 평생 책임질 일을 하게된다
- ✓양인의 破格은 학원강사의 명이다
- ✓剋이 제대로 되는 丙火와 甲木 일주가 양인격 다운 양인격이 되며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財는 정재 보다는 편재가 좋다 ⇨ 정재는 비겁의 剋을 받으므로

✓양인이 殺이 많아서 신약하면 卯木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사주는 먹고 놀아도 평생 행복한 사람인데 반해 비겁이 많으면 다른 사람은 먹고 놀아도 나는 일해야 한다

✓비겁이 한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의미인 반면에 양인은 내 것을 주어야 하는 강제집행의 정해진 명이다

✓양인에게는 殺이 필요하고 殺은 재성이 필요하며 비겁이 있으면 구물(俱沒)이 되므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

✓양인격은 木과 火 일간이 제대로 된 양인격이다

✓卯月 양인이 辰土, 戌土가 있는 건 괜찮지만 殺은 時에 辰土는 年에 있으면 이는 卯辰合木 되어버린 것이다

✓비겁은 뺏고 싸우는 것이지만 양인은 죽고 사는 문제이다

●양인의 원칙

- 刃에는 殺이 있어야 한다
- 刃에는 비겁이 있어선 안되고 殺에는 재성이 있어야 한다
- 비겁은 없는 것이 좋으며 비겁이 있으면

●양인의 조건

- 殺이 없는 경우
- 殺이 약한 경우
- 殺이 강한 경우
- 재성이 있어야 한다
- 겁재는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
- 沖이 나쁘다 ⇨ 양인이 財를 制하고 있는데 沖하면 안되며 그 외에는 상관없다
- 日刃이 重刃 될 때와 月겁재 역시도 양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겁재가 아무리 많아도 財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인의 비겁

- 財를 剋하는 경우 ⇨ 등계되고 신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기사가 나간다
- 財生殺 하는 財를 剋하는 경우 ⇨ 뒤에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좋지만 실수를 잘못하면 큰일난다
 - ▶ 만약 정관으로 비겁을 친다면 공명정대, 청렴결백으로 주위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 ⇨ 옛날 청렴결백으로 구족을 멸하거나 하는 등
 - ▶ 財生殺 하고있는 財의 양인을 정관이 와서 剋한 것이므로 財生殺이 다시 살아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 정관으로 비겁을 친 경우 고발정신, 주적을 가지고 대항하고 파해친다
 - ▶ 겁재를 정관으로 대항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남편의 말을 무시하거나 한다
- 重刃 ⇨ 重刃만 있다고 사건이 일어나진 않으며 습이 인성이나 殺에 끼면 문제가 발생한다
 - ▶ 重刃은 임무 + 임무가 온건데 일간이 습이 되면 자신의 임무를 잊고 엉뚱한 짓을 하게되며 重刃이 터져 나오게 된다 ⇨ 등재된다
 - ▶ 重刃의 일간습은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부리는 것이며 혼자 있을 땐 울고 잠수 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남
 - ▶ 重刃이 되었다는 것은 殺의 임무가 막중한데 殺이 습去가 되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닌다는 의미임
- 日刃 ⇨ 독자적으로 刃 역할을 할 수는 없으며 月에 劫이 있거나 地支에서 會습을 했을 경우 양인과 같은 피해가 생긴다
 - ▶ 이런 때는 보증이나 책임 질 일이 생기므로 무언가를 빌려주지 말아야 하는데 비겁을 타고났으므로 쉽지 않은 일이다
 - ▶ 단체 내에서 희생을 하는 자로써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지 자연발생적인 것은 아니다
 - ▶ 自刃되고 月劫되면 집안의 가장으로 본인이 돈을 벌어야 하고 본인이 있어야 분위기가 좋아진다고든지 하는 것으로 안에서든 밖에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서든 본인이 최고라고 빠기진 말것

- 정재가 정인을 쳄하면 아무리 애써도 부모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 겁재는 채무자 木은 썩썩하다의 의미로 볼 수 있음

❶ 양인의 특징

- 아버지가 먼저 죽고 마누라가 다음에 죽고 돈이 안남음
- 처가 바람 피고 본인도 바람 피고
- 왕창 들어왔다 왕창 나감
- 양인격과 상관격은 成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運에서 얼마든지 破格이 될 수 있지만 식신격은 상관없다
- 양인격이 破格이 되었다는 것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오히려 成格이 될까말까한 것이 運에서 양인이 들어오는 것이 무섭다
- 양인의 90%는 破格이며 모두 역부용신이다

❷ 양인의 운

- 重刃의 運
 - ▶ 甲木의 경우라면 地支에 卯木이 다시 오는 것을 별로 두렵지 않다
 - ▶ 甲木 일간이 未土는 나쁘지 않으면 亥水가 오면 나쁘다
- 습의 운
 - ▶ 殺과 寅 사이의 대칭관계를 건드리지 말 것
- 沖의 운
 - ▶ 刃을 건드리지 말 것
 - ▶ 財를 制하고있는 양인을 沖으로 건드리면 안됨

❸ 양인의 분류

- 가령 甲木의 경우 乙卯, 丁卯, 癸卯는 그냥 양인이라 할 수 있지만 己卯, 辛卯는 財頭刃, 官頭刃이라고 해서 탄생 자체에 문제가 있다

❶ 양인의 成格

- 야만성 속에 감추어진 선한 모습이다

❷ 음양

- 음양운동이 오행운동으로 가는 것이다
- 음양(陰陽)은 바로 마음의 문제다
- 한습하면 한냉
- 불평불만은 한과 습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 난조한 사람은 시간에 관한 문제이며 욕심이 끝이 없을 수 있다
- 한습한 사람은 과장이 된다면 나에게 어떤 사무실과 여건을 줄까 기대하고 난조한 사람은 어떤 이익과 앞으로 어떤 지위까지 가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 전부 습하면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 한냉하거나 調하면 자율신경을 막을 수 있고 한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 음양이 마비되어 있으면 五行으로의 분합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 陰
 - ▶ 寒 : 추워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따스한 것을 원한다. 원하는 것이 많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 ▶ 暖 : 장소를 많이 따진다
 - ▶ 調
 - ▶ 濕 : 申月이나 辰月에 金이 旺하면 습하면 한하므로 위의 한과 같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甲乙丙己

申卯寅酉

- 天干은 丙火나 壬水 중심으로 본다

戊巳子丑

- 습하면 불편하고 불만이 많다는 뜻이다
- 식상과 인성이 습하게 만드는데 식상은 장모고 인성은 어머니이므로 둘 다 편하지 않다라는 뜻이 된다

●양인격의 원칙

- 양인격의 직업은 결코 오래 가지는 않는다 ⇨ 살생필설(殺生筆舌)로 일발장진으로 대장이 되는 것이 양인격의 직업의 특징이다
- 돈은 별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 작첩을 하는 것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며 결혼을 하지 말든지 결혼 해서 들어가지 말든지 해야 한다
- 여자 양인격은 남편과 살기 힘들다 ⇨ 剋妻, 剋扶, 剋財가 삼대 원칙이다
- 부모가 돌아가셔야 하며 만약 안 돌아가셨다면 작첩을 한 것이다
- 양인격의 인성運은 최소 30년을 직장을 다니게 만들어준다 ⇨ 筆로 가 버린 것이므로 청와대나 이런 쪽의 진출은 아니다 ⇨ 10년 대운만 와도 30년을 쓰고 1년만 와도 10년은 쓴다
- 양인격이 이렇게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양인과 七殺이라는 殺 대 殺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양인의 용신

- 殺이 용신인데 殺이 없으면 식상을 용신으로 쓴다
- 식상을 용신으로 쓸 경우 生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일간이 水, 木, 金 일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일간이 火일 경우는 식상을 쓰기는 곤란하다

●기타뽕뽕

- 丁火가 壬水를 봤을 때
 - ▶ 바람남, 좋다, 다 안다
 - ▶ 丁壬合木으로 木生火 했다는 것은 분위기가 木生火인 것이지 결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국은 水克火이다

- ▶ 天干이므로 바람이 나거나 들킬 수도 있으며 지지에서 힘을 실어 주었다면 뜻이 통친것이다

- 乙木

- ▶ 火가 없으면 굴목(屈木)이 된 것
- ▶ 金克木이면 가구
- ▶ 썩썩하다, 처녀, 아침

- 겁재

- ▶ 형제, 이복형제, 친구, 채권자

- 天干

- ▶ 하늘, 뜻, 보이는 것

- 地支

- ▶ 노력, 인간사

- 일지가 식상이고 年은 官이다

- 格은 官이고 용신은 나다

- 體와 用에 있어서 體는 사주, 格과 用은 運이고 用이다

- ▶ 體와 用은 한 개이지만 다른 것이 와서 그 用을 방해해서 용신이 둘로 나누어진 것이다
- ▶ 體는 생김새를 이야기하고 用은 쓰임새를 이야기한다

庚甲乙戌

午辰卯申 乾

- 乙木 투간해서 財를 치는데 偏正財를 가리지 않는다
- 乙木 투간이 되어서 형이나 동생을 잡아먹는 것이고 책임져야 하고 스승보다 낮다라는 의미이다
 - ▶ 직장 들어간다면 사장을 하는 것이고 가정이라면 가장을 하게되며 재산은 파산이다
- 양인은 刑이 제일 무섭다
- 卯辰方合은 양인합살(陽印合殺)의 의미로 양인이 강해졌지만 음으로 강해진 것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사주가 중인이지만 殺이 강하므로 重刃이 두렵지 않은 정도이다 ⇨ 重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당대의 영웅
- 양인은 三合이 되면 모두 양인이 되므로 안되며 六合은 정에 치우치게 만들므로 안되며 方合은 상관없다
- 乙木은 해결이 되었다 치고 辰土가 살아나길 바래야 한다

戊甲己乙

辰戌卯卯 坤

- 重刃에 六合이 되어있어서 정에 묶여서 重刃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하고 산다
- 겁재가 떠 있어서 財官을 구물(俱沒)시키고 있다
- 양인의 財는 殺을 生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지 아무리 많아도 마구 剋한다 ⇨ 인성이 들어오면 財克印을 해서 또한 나쁘다
- 양인이 六合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작첩의 의미이며 해결방법이 없다
- 乙木을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고 용신이 없어진 것이며 양인격이라 할 수 없으며 양인격의 특성만 나타나며 비겁이 왕하고 재성
- 庚辰 大運 때 비록 庚金이 왔다고는 하나 金克木일 뿐 제대로 된 殺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기고 노심초사하면 등창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다
- 양인격 甲木의 경우 火로 용신 삼는 건 대단히 좋지만 庚金의 경우는 식상일 뿐 별로이다
- 여기서 해결해야 할 것은 重刃, 六合, 官이 없는 것 등 많으며 용신을 잡을 수는 없다. 인성운이 온다면 財克印이 발생하고 官이 온다면 金克木에 불과하다. 비겁다에 財多 하므로 일간용신으로 화이다
- 추명은 양인격이라고 보고 하지만 운로에 있어서는 양인으로 간명하

기 어렵다

癸壬丙己

卯子子未 坤

癸壬辛庚己戊丁

未午巳辰卯寅丑

- 殺이 없으므로 양인격이라 할 수 없고 子月 壬水를 일반 사주로 보고 어떤 格을 잡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 丙火나 己土 중 하나인데 丙火는 지나치게 약하고 억부로 己土용신이고 喜神은 丙火이다
- 財運이 더 좋으며 편관이 온다고 크게 좋을 것이 없고 重刃이 온다고 크게 나쁠 것도 없다 ⇨ 이미 양인이 아니라 다른 사주로 돌아왔다
- 格은 정관격이고 용신은 丙火이고 직장을 다니는데 경리사원 정도 하는 것임
- 壬水, 子水를 막는다는 유일하게 戊土가 막을 수 있지 己土로서는 막을 수 없다
- 대단한 미인이고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음

癸戊庚甲

亥寅午寅 乾

癸 壬 辛

酉 申 未

30 20 10

- 대단히 신약한데 財生殺 하고 있어서 午火용신
- 午火가 용신이라도 壬申, 癸酉 運이 나쁘진 않으며 地支의 水運은 나쁘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사채업도 했음
- 양인격이 아니다

甲己庚

辰卯戌 坤 오현경

- 己卯年에 重刃으로 낙향을 하고 甲己습으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 庚金은 어떤 土든 다 生을 받을 수 있다
- 甲己습이 문제인데 사소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며 원래 甲己 습이 되어 있는데 또 己土가 와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天干에 乙木이 있으면 己土같은 것이 와도 날려버리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丙壬戌庚

午申子申 坤

- 양인격에 재성도 양인이고 편인은 건록을 두 개나 거느리고 있어서 붕 잡으려다 황될 수 있는 사주이다
- 丙火가 戌土 殺을 生할 수 있다고 보고 양인격이 되었다
- 殺이 있는가, 財가 있는가, 겁재가 財를 剋하는가를 순서대로 따져 보아야 하는데 申金이 두 개나 있으므로 겁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 水克火가 심하게 된 것인데 金水運으로 들어가면 난감하다
- 양인격이 破格되도 天干으로 인성이나 관살운이 오면 양인격인 척 할 수 있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로 출마해도 된다 ⇨ 건록격의 인성 運은 좋지않다

戊丁辛己

申未未酉 坤

(己)

- 丁火가 未月에 乙木사령이나 乙木이 투간되면 사주가 아주 버려버리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는데 乙木이 아주 없으면 사주가 깨끗해진다

- 억부가 무너져서 가정궁은 깨어졌다
- 식신월령 상관격이고 용신은 인성이고 정신력이 인성에 가 있다
- 火土 상관격은 격 자체가 인성과 관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 천간에 기신인 土나 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건드릴 것이 없으므로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甲木 대운에 己土나 庚金 년운이 들어온다면 변화가 일어난다

丙丙丙壬

申申午辰 乾

- 비견이 투가 했으므로 財를 치게된다
- 칠살이 있으므로 귀하게 쓸 수는 있지만 인성이 없으므로 지속성은 없다
- 地支에 巳火나 午火가 온다면 백발백중 이혼이다
- 비견이 財를 직접적으로 치지를 않으므로 구몰(俱沒)을 오랜 시간 시킨다
- 인성이 없으므로 자신의 구역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
- 도의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안된다
- 식신이 편관 옆에 지나치게 붙어 있어서 큰 자리는 힘들다

戊庚辛戊

寅戌酉子 乾

- 官이 없지만 申酉戌月에 官이 없다고 말을 할 수 만은 없다
- 식상이 약해서 용신으로 쓰기 곤란하고 재성이 용신이다
- 재성용신자의 특징은 호걸의 상으로 사람이 따르거나 추종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 양인격 중에 작첩 해서는 안되는 사주이며 그 외는 작첩해도 상관없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丙寅, 丁卯 大運 현재 공무원
- 양인격은 한 다리 건너서 호걸이 나온다
- 官이 약하게 떴다면 깡패 사주이다
- 식사가 있으므로 인정머리가 있어서 가정에서나 밖에서 베풀 수 있음

戊甲辛辛

辰寅卯卯 乾

- 서울 상대 나와서 대기업 이사로 있다가 사업을 크게 하고있음
- 할 수 없이 재성 용신
- 용신은 없다
- 병술 대운에서 몇십억 벌었음, 을유 대운이 위험

건록격

●양인과 건록

- 양인이 건록을 가지고 있거나 건록이 양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破格으로 일반 格에 불과 하다
 - ▶ 관살을 용신의 첫째로 하고 식상을 둘째로 한다
 - ▶ 亥, 字, 丑, 巳, 午, 未, 寅, 戌 月의 경우는 조후를 생각해야 한다
 - ▶ 조후까지 걸려있으면 양인격은 째뽕이 돼서 格의 쓰임이 떨어진 다

甲戌癸乙

寅辰未巳 乾

- ▶ 편관이 용신인데 癸水 조후까지 있고 이 사주의 의도가 巳火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래저래 골치 아프다

●건록격의 破格에 대하여

- ①비겁이 많으면 양인이 된다
- ②官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印과 財가 필요한데 財克印 당하거나 비겁이 財를 쟁탈하면 파한다
 - ▶ 財克印 ⇨ 고부갈등
 - ▶ 劫剋財 ⇨ 구물(俱沒)
- ③財로 이루어져 있다면
 - ▶ 식상이 있어야 하며 인성이 있어 剋받으면 안된다 ⇨ 부도난다
 - ▶ 비겁, 건록, 財가 沖하면 안된다 ⇨ 사건이 마구 발생한다

甲戌癸乙

印辰未巳 乾

- ▶ 官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官이 혼잡이 되어 버려 두 가지가 되었고 조후까지 필요하므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하는데 서로 충돌 안되기를 바래야 한다. 비겁이 多한데 겁재가 없으므로 그나마 다행인데 비견이 土克水 하므로 관을 쓰기는 힘이 들며 財克印은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당하지 않으므로 고부갈등은 없다. 비겁이 財를 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運에서 치게 된다.

- ▶ 官이 財에 의존하고 있을 때 구물(俱沒)이 되지만 양인, 건록은 財를 치면 기본적으로 구물(俱沒)이 발생한다
- ▶ 財중심으로 본다면 인성이 식상을 쳐야 부도가 나는데 식상이 없으므로 부도가 나진 않는다 ⇨ 丙火 大運 庚金 年運이면 살짝 부도가 날 수는 있다

- 명식 2

戊庚戌壬

寅子申寅 乾

- ▶ 財중심으로 되어있으므로 食神生財를 해야 하는데 식신이 인성에 겹쳐 당하고 있으므로 부도의 사주다
- ▶ 丁丑時라면 완전히 구물(俱沒)된 사주이다

- 명식 3

戊甲己乙

辰戌卯卯 坤

- ▶ 원국 상 비겁이 용신이며 인성운이라면 인성이 용신이다
- ▶ 財 밖에 없으므로 財 중심의 사주이다
- ▶ 財와 모조리 숨이므로 비겁의 의미인 친구, 동업자, 주인을 의미하므로 취직할 때 아는 사람이 그곳에 있나 없나를 보고 취직해야 함.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을 밀어내고 다음에 물러나야 한다
- ▶ 인성운이 순탄한 것은 식상이 없기 때문이다
- ▶ 地支에 寅木이나 卯木이 들어오면 숨하고 沖은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天干에서는 沖하므로 하늘의 복은 없으며 地支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 내야 하는 사주다
- ▶ 비겁격, 양인격, 건록격 등은 沖이나 재성이나 인성과 같은 두드러 맞을 것만 없으면 큰 탈은 나지 않는다

- 양인격에는 재성이 중요하고 건록격은 인성이 중요하다

- 官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財는 아무리 剋해도 아버지만 죽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官을 生하는 財를 쳤을 때 문제는 크게 발생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특히 양인격과 건록격은 목숨의 문제까지 거

론할 수 있다

●견록격, 양인격, 겁재격의 전체개요

①첫째 官을 제일 먼저 살펴야 한다

- ▶ 官 중심으로 봤을 때 인성과 재성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
- ▶ 양인격에는 재성이 견록격에는 인성의 중요성이 더 크다
- ▶ 사고나는 순서 ⇨ 財克印, 비겁이 財剋, 상관견관(傷官見官)
- ▶ 상관견관(傷官見官)은 사고 친 것이므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다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사주에 따라선 도 좋을 수도 있다

②두번째가 식상을 취용(取用)한다

- ▶ 식상은 財를 필요로 한다
- ▶ 인성이 식상을 剋해서는 안된다
- ▶ 財를 볼 때는 견록이나 비겁이 충극(沖剋)되어서는 안된다

③세번째 중요한 것은 財와 官의 관계이다

- ▶ 財가 官을 생해주지 않고 있을 경우는 財를 쳐도 무관하다

●生木과 死木

-乙亥, 甲寅, 乙卯, 甲辰, 乙巳

- ▶ 生木으로 火가 필요하다

-甲申, 乙酉, 乙丑

- ▶ 死木으로 金이 필요하다
- ▶ 대단히 약한데 金을 用한다는건 말은 안되지만 金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진다

●인성에 대하여

- 인성이 용신운 ⇨ 진급, 업그레이드, 승진,
- 인성이 기신운 ⇨ 재탈, 금전의 정지상태, 우울증
- 인성이 조후운 ⇨ 독서중
- 인성격의 직업 ⇨ 대학자 - 문화센터 - 정신병자
- ▶ 관용신 ⇨ 대학자, 문화센터, 정신병자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 재용신 ⇨ 정신병자, 문화센터, 공간활용업, CD판매, 출판, 임대업
- ▶ 식상운 ⇨ 활용, 교육사업

●용신에 대하여

- 격국과 용신에 뚜렷했을 때 용신이 인간에게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만약 식상생재(食傷生財)가 成格이 되었다면 인성운, 관성운에도 문제가 없고 좋을 뿐이다
 - ▶ 만약 용신이 너무 약하다면 인성운, 관성운이 온다면 그쪽으로 돌아가 버린다
 - ▶ 격이나 용신이 뚜렷하지 못하면 상반되는 運에 그 쪽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본인이 혼란스러워 하게된다

●양인의 용신

- ①金 양인 ⇨ 火가 용신 : 橫하고 從한 것으로 타협하는 유순한 양인
- ②木 양인 ⇨ 金이 용신 : 橫하고 橫한것
- ③火 양인 ⇨ 水가 용신 : 從하고 從한 것
 - ▶ 水火는 從해야 하는 것인데 橫하게 되면 신세 조진 것이고 火나 水가 橫하면 뚱뚱해 진다
 - ▶ 辰土부터 종(從)이 시작되고 寅木부터 횡(橫)하기 시작한다

甲甲壬壬

子午寅寅 坤

- 건록격에 無官이므로 식상으로 가야하는데 天干엔 식상이 없고 運은 官運이므로 官으로 가야한다
- 원래 식상으로 가야하는 사주이므로 이중적인 면이 있다 ⇨ 運은 직장이고 사주는 식상이므로 팀장, 영업부장 같은 직책을 지니게 된다
- 건록격, 양인격은 일찍 결혼할 수 있고 이혼을 피하려면 40 정도에 가면 된다
- 인성이 식상을 치고 있으므로 도식(倒食) 되면 부도난다는 의미를 가

집

- 양인, 건록은 말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친구는 친구대로 만난다
- 사주는 官이 없으므로 재성중심인데 運이 官과 寅으로 갔으므로 직장에서도 식상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으로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이 사람이 없으면 직장이 안 돌아간단든지 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열명 정도 논단든지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비견이 식상을 生해주므로 영업상무, 광고업계 등에서 성공을 하지만 사주가 식상이므로 언젠가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壬午년은 子午沖으로 사업을 하게될 운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 건록격은 식상으로 볼 것인가 官格으로 볼 것인가 먼저 결정을 해서 진로나 운을 판단할 것

庚癸丙甲

申卯子寅 坤

- 인성이 상관 寅木을 寅申沖 하고 있는데 멀긴 하지만 沖은 沖이며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子水가 申金 옆에 있었다면 沖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위치 상 沖을 해소하기는 힘들다 ⇨ 관절 쪽에 문제가 발생
- 傷官生財의 형태를 띄고 있어 식상 중심으로 보는 사주임
- 사주가 水나 火月에 태어나면 五行보다 음양을 먼저 보아야 하고 木이나 金月에 태어나면 五行을 먼저 보고 陰痒으로 濕 조절만 하면 된다
- 식상을 볼 때 財沖을 조심해서 봐야 하는데 병자로 섰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아버지의 무능력
- 정재가 시댁, 아버지, 친정의 의미이므로 시댁을 모시지는 않으며 月干에 있으므로 아버지를 모시지도 않는 것이며 돈을 벌면 시댁이나 친정에 돈을 벌면 받은 갚아주어야 함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月에 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년에 있어서 財를 生하고 있으므로 아버지를 책임져야하는 의미임
- 調한 기운이 없으므로 濕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木이 있으므로 바람이 많이 부는 격으로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 물건에 대한 폐허를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비겁이고 정신에 대한 폐허를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은 재성이다 ⇨ 財가 한 글자만 있어도 財生官이나 食상생재(食傷生財)나 財克印이나 고민하는 상황에 빠짐

辛辛己壬

卯未酉戌 坤

癸甲乙丙丁戊

卯辰巳午未申

- 食, 財, 官 중 어느 방향으로 볼지 명식 자체에서 판단하기 힘들므로 운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 원국에서는 상관을 쓰려고 하나 정편인(正偏印)이 있고 용신은 없다
- 戊申大運에는 食상 중심으로 가다가 丁未大運에서 官 중심으로 바뀌었음
- 양인, 건록이 인성이 많은 건 나쁠 것이 없다
- 食상을 쓸 수는 없으므로 돈과는 거리가 멀고 食상이 죽었으므로 이 혼과는 거리가 멀다
- 전체적으로 食상충, 재성충, 인성과다(印星過多) 이다
- 재성이 관성을 生하지 않고 沖 맞았으므로 떴다가 망신당했다가 망신당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나갈 수는 있다

戊甲戊乙

辰寅寅巳 乾

壬癸甲乙丙丁

申酉戌亥子丑

- 己土가 오면 구몰(俱沒)이 된다
- 관성이 없고 無印星이므로 식상으로 가고 식상 또한 잘 살아있다
- 그러나 運이 官印으로 흘러가므로 노력한 만큼 성과는 없다
- 運이 官印으로 흘러가므로 직장을 다니겠지만 식신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언젠가는 나온다 ⇨ 대체로 40대 전후

壬丙丙壬

辰寅午戌 坤

- 편관이 재성과 인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성이 없으므로 편관이 고립무원 되어서 나만 살고 주위 사람은 죽이는 사주이다
- 財가 없으므로 비겁이 많아도 탈이 없다
- 제살(制殺)에 살인상생(殺印相生)까지 해서 사주 자체의 구조는 어느 정도 쓸만하다
- 大運이 식신운이므로 식신이 財 역할을 같이 하므로 돈을 써야 하는데 無財 이므로 많이 써서는 안되며 어느 정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官을 生助할 수 있음

己甲己庚

巳辰卯申 坤

- 大格인 양인격이 숨이 重하므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선 것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지만 天干으로 인성이 온다면 발전은 하겠지만 地支로 온다면 큰 발전은 없으며 그다지 나쁘진 않지만 노력이 필요하다
- ▶ 식상격은 숨이 있어야 아부도 하고 좋다
- 財가 개두 制 받아서 편관을 돌보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임
- 양인격은 살생필설(殺生筆舌)을 해야하는데 無印星이란 그 살생필설(殺生筆舌)의 맥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어지게 됨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양인격은 財를 절대 건드릴서는 안 되는데 이 사주는 겁재가 없으므로 그것 하나 만으로도 대단히 좋다
- 일간이 흔들렸을 뿐 破格은 아니며 成格이다
- 양인격은 살생필설(殺生筆舌)이며 사주가 어중간하거나 운이 나쁘면 학원강사, 가이드, 통역사 등의 命이다
- 양인격의 숨은 이루어진 뒤 오래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장단을 아는 의미임
 - ▶ 여기서 甲己숨은 나의 행복 찾아서 가겠다는 일반 평민적인 의미임
 - ▶ 상담할 때 양인격테로 이야기 해 줄 것인가 甲己숨을 이야기 해 줄 것인가 이야기를 잘 해주어야 함

癸庚甲庚

卯寅申戌 乾

- 바이섹슈얼
- 인성이 식상을 剋하지 않지만 건록과 財가 沖이므로 구물(俱沒)
- 건록과 財가 沖이므로 벌면 빠져나가는 것이고 결국 처에게 맡겨야 하므로 결혼하고 빠져나가라고 충고해줌
- 식상이 용신이고 인성이 식상을 沖하지 않아서 다행임
- 財가 沖이므로 저축액에 문제가 있다

丙己乙壬

寅巳巳午 乾

- 인성이 多한데 재성이 너무 약하다
- 재성을 쓸때는 편정인이 혼잡되었을 때 쓴다
- 여기선 官을 쓰고 運에서는 財를 쓴다
- 庚戌大運에서 인성이 會습되어서 사주가 버렸다 ⇨ 정인격에 편관용신자가 會습이 돼서 혼잡이 되 버리면 자신의 단점을 노출시킨 것으로 자신이 살집이 없는 사람이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 회합(會合)에 있어서 方合은 고향을 의미하고 三合은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을 말하는데 그 영역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다
- 억부가 무너져서 가정은 깨졌다
- 정관격에 정관용신인데 자신은 편관용신으로 착각하고 있다

戊戌庚庚

午午辰戌 坤

- 辰土 ⇨ 水의 분열, 종(從)의 시작(火의 시작) ⇨ 辰月의 水는 水生木이 아닌 火를 키우기 위한 水로써 木生火를 하므로 殺印相生도 한다
- ▶ 午火도 있으므로 殺印相生도 하므로 運따라 추명한다
- 格을 午火로 잡을 것인지 庚金으로 잡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庚金으로 格을 잡았다 ⇨ 土金식신격에 식신용신이고 재성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運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財에 정신이 가 있는 것이다
- 용신을 식신으로 잡았지만 월지를 해결해야 한다
- 火와 庚金 둘 다 格 역할을 하고 식상격으로 格을 잡았지만 運이 인성으로 가므로 사주가 운에 의해서 못쓰게 되었다
- 결국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
- 運에서 甲木이 들어오면 이혼하며 乙木으론 이혼이 안된다
- 관인상생(官印相生)까지 받은 식신생재(食神生財)이므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 만약 辰土가 아닌 戌土였다면 말이 달라진다

乙甲乙戌

亥午卯申 乾

- 양인에 있어서 안될 비겁이 투간했고 財도 투간 했다
- 비겁이 투간 되었어도 財가 없으면 상관없다
- 인성운이 제일 좋다
- 양인격에 겁재가 투간되면 아버지와 마누라 둘 다 잡는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모든 격에서 비겁 용신은 좋은 일이 없으며 그 중에서도 財格에 비겁 용신자가 그나마 나은데 마누라 죽으면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면 된다. 그리고 건록격에 비겁 용신을 잡는데 건록과 財가 충하면 곤란하다
- 비겁 용신은 재성이 殺을 生하는데 인성이 제 역할을 못 할 때 비겁 용신을 쓴다
- 양인격에 비겁 용신자는 인성을 설해서 부선망을 하고 건록격은 모선망 하게된다

癸己辛辛
亥酉丑亥 坤

丙乙甲癸壬
午巳辰卯寅

- 비겁월에 식신과 편재가 투간되었다
 - ▶ 만약 상관과 편재가 투간되었다면 傷官生財라고 할 수 있지만 식신과 편재는 같으면서도 다르므로 따로 이야기해야 함
- 無官, 無印이므로 식상생재(食傷生財)의 의미가 되므로 제발 겁재만 없으면 된다
- 조후는 火인데 火가 없다
- 식신이 지나치게 多하므로 식신이 破格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편재격이다
- 편재가 亥水에 壬水가 있으므로 地支 혼잡은 있지만 비교적 純一한 사주다
- 편재격에 편재 용신 사주이다 ⇨ 경영, 계획 등 돈 찾아다니는 사주이다
- 문제는 조후운이 木부터 시작해서 火運으로 들어온다
 - ▶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하고 따듯하게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 사주의 格이 똑바로 서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주와 같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진로가 변경될 수 있다(極신약해서 格을 쓰기 힘들다)
- ▶ 특히 인성 조후는 놀게된다 ⇨ 格이 서있는 경우는 아님
- 巳火運은 사건의 문제지 힘이 강해지고 하는 문제는 아님
- 酉金이 癸水를 生하는 것은 탁수(濁水)이다
- ▶ 癸水가 丑土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면 水生木을 할 수 있겠지만 酉金으로부터 나왔으므로 水生木은 불가능하고 水克火는 가능하다
- 運따라 가는 사주이며 경영이나 계획 쪽으로 가기는 힘들며 문화센 타나 학원강사 정도는 할 수 있다

庚壬戌庚

子午子子 坤

- 우리나라의 양인들이 대체로 비겁들이 많다
- 양인격에 戌土용신은 조후가 시급하다
- 俱沒되어 집안 망하는 것이 시급하다
- 地支 寅木은 좋으며 火運은 양인과 沖하므로 나쁘다
- 현재 丁丑大運으로 사는 건 괜찮다
- 비겁이 많아서 格이 떨어지고 살생필설(殺生筆舌)로 선생님 정도 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목숨과 직결된다
- 年運에서 子午沖 들어오는 건 내가 실수만 안하면 되며 大運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므로 해석이 다르다

甲丙丙丁

午子午酉 乾

- 丁火투간
 - ▶ 財를 탐한다
 - ▶ 겁재 투간은 弱자를 죽인다
- 午火가 重刃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 重刃은 强者를 상대한다
- 酉金은 아무리 剋해도 멀쩡하다 ⇨ 酉金은 보석이고 음식으로 치면 썩거나 발효된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酉金은 濕해서는 안되고 燥해야 한다
- 地支 重刃을 논하려면 天干이 흔들려야만 논할 수 있다
- 壬午年이 되면 丁壬합으로 重刃이 되어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 重刃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므로 午火가 와도 누군가를 괴롭히긴 하겠지만 심하지는 않음
- 金生水가 안되어 있으므로 그 직위가 높지는 않음
- 안기부 서기관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하는 권력과는 거리가 멀다
- 양인격은 시대적인 것을 제일 많이 반영한다

庚丙庚丁

寅午戌巳 乾

- 양인격 보다 더한 양인격이다
- 사주 전체가 火가 되어버려 格을 잡기 곤란하고 어쩔 수 없이 편재격을 잡았다
- 식신생재(食神生財)가 되어 A급이 되었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비겁이 많아서 보관은 되지 않는다 ⇨
- 편재격에 식신용신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며 언젠가는 運에서 망할 수 밖에 없다
- 편재격에 식상용신이 비겁이 많으면 가출하는 사람이다
- 官이 없으므로 식상을 용신으로 써도 상관의 없다 ⇨ 여자가 식상용신을 쓰면 남편을 보상해야 한다
- 丙庚 甲壬 ⇨ 이와 같은 구조의 사주는 운이 어찌되었던 간에 한번 품은 난다

戊 申

月 月

丙壬癸壬

午戌卯午 乾

- 신약한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으로 사주에 金이 없다
- 天干엔 水가 있고 地支엔 火가 있으므로 제련되고 유통되서 運에서 金이 오면 쓸 수 있다. 金이 가장 좋다
- 金이 오면 상관패인(傷官佩印)이 돼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데 金이 없고 오지 않으므로 돈으로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지만 하급에 불과하다
 - ▶ 地支에 午火가 있어서 제련될 수 있으므로 金을 쓸 수 있는 것이지 年에 卯木이 바로 나와있다든지 한다면 쓸 수가 없다
 - ▶ 巳火가 있더라도 丙火가 투간되었으므로 그다지 큰 문제는 없지만 戌土가 있으므로 午戌합에 巳午합까지 會합으로 묶임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
- 양인격 보다 더 나쁜 놈
- 비겁이 다하므로 작첩은 기본인 대단한 바람둥이며 첩을 얻으면 사주가 좋아진다
- 남녀를 불구하고 비겁이 많은 사람은 작첩을 할수록 이득이다 ⇨ 명리학은 댕궁의 개념이므로 비겁이 곧 여자이다
- 사회적으로는 卯戌합 되어있고 밖으로는 午戌합이 되어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전혀 모질지 않다
- 부인한테 대단히 잘 하므로 부인 또한 미워할 수 없다
- 비겁이 용신이므로 돈을 안 벌어도 3년은 살 수 있는 팔자이다
- 재다신약(財多身弱)이라도 식상생재(食傷生財) 된 재다신약(財多身弱)은 능력이 있는 財多身弱이다
- 월첩재란 권위와 모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모으고 여자를 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財를 친다고 봐서는 안되며 財를 다스려준다고 봐줘야 함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地支가 습으로 처와 끈끈한 인연이 있으므로 결국 첩보다 처가 대접을 받게된다
- 일반 범부들 입장에서 보면 얄밋게 돈 잘 벌고 사람들한테도 잘 하고 하므로 알미워 보일 수 있다
- 상관생재(傷官生財)에 財가 時에 있으므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돈벌 궁리하고 돈을 번다 ⇨ “나이가 들어도 運이 오네”라고 생각한다
- 水木상관격이 金을 요하는 사주이므로 자식 사주는 食상생재(食傷生財)로 하나 나오고 傷官佩印으로 하나 나오게 된다
 - ▶ 金運이 태어나기 이전에 왔으므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食상생재(食傷生財)와 傷官佩印으로 나누어져 지기 시작했고 자식에서 완성된다
- 卯木은 丙火와 庚金 둘 다 원한다

격국종합

庚壬乙乙

子寅酉未 坤

- 편인격 : 운이 官에서 食으로
- 약사하다 말고 己卯년 후반 갑자기 장사로 전환함

癸乙壬甲

未卯申辰 坤

- 정인격 : 식상운
- 운이 火로 와서 官이 손상이 되었다
- 인성격으로 상관운이 10년이나 왔으므로 완전히 돌아갔으므로 정신 상담만 하면 됨

乙丙乙丙

未申未午 乾

- 정인격 : 관성 + 식재운
- 베스킨라벤스 체인점을 내겠다고 함
- 地支는 관성 天干은 식재(食財)로 운이 왔는데 사주에 官이 없으므로 운에서 官이 와도 크게 써먹지 않고 그런 직업관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하다
- 부인이 임신을 할 거 같은데 임신 전에 사업 할 것이냐 아니면 임신 후 할 것이냐 만약 임신 할거 같으면 甲申年 이후에 사업 시작하니까 둘이 알아서 결정해라
- 당신 스스로는 사업능력이 없으므로 점포를 만들어 놓고 임대식으로 해라
- 상관월에 인성격이므로 月이 格을 떨어주지 않고 사업을 하더라도 인성격 비슷한 사업을 하게되고 겁재가 상관을 生하고 있으므로 관운이 온다고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나오려고 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子水運이 먼저 왔다면 직장을 다녔겠지만 亥水運이 먼저 왔으므로 이미 사업으로 돌아서게 된다
- 地支는 결정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 의료가 상사 다니면서 영업하고 있음

辛丁辛己

丑酉未酉 乾

- 식신격 : 상관에서 인성운으로
- 식신생재격이므로 사업할 운이다
- 34살부터 54살까지 인성운이므로 어른을 모시고 하고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사업을 해라 ⇨ 레파토리
- 모두 혼잡이고 첫 번째 사주만 격이 제대로 서 있다
- 예를 들어 인성격에 관성이 있는데 조화가 잘 되면 운에서 진로나 적성이 변하지 않지만 인성이나 官이 약하거나 혼잡이 된다면 운따라 바뀌게 된다

❶ 격국이 흔들릴 때

- ① 충극(沖剋)하면 흔들리지만 官格과 財格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 官格에 상관견관하면 망하는 것이고 비겁이 많은 財格이 비겁이 오면 망하고 다시 한다
- ② 혼잡 ⇨ 다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욕심이 생긴다.
 - ▶ 인성과 식상의 혼잡이 제일 두렵다
 - ▶ 인성과 관성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고 식상과 재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할 경우 역용(逆用)되므로 운 따라 가게된다

❷ 官格을 예를 들면

- 官格이 충극(沖剋) 되었을 경우 ⇨ 그냥 官으로 간다
- 官格이 혼잡 되었을 경우 ⇨ 남자는 官으로 가고 여자는 중간에 서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서 있는데 문화센터 같은곳엘 다닌다든지 한다

-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하면 운 따라 간다

甲庚乙壬

申午巳寅 乾

己戊丁丙

酉申未午

- 편관격에 식신생재격

- 壬水, 甲木 투간으로 식신생재도 이루었고 사주쟁이 따라 金, 木, 水 용신 다 나온다

- 午火, 未土 대운은 官이 힘을 받고 申金, 酉金 대운은 식신이 힘을 받는다 ⇨ 운따라 가게되며 힘은 지지가 싫어준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격국을 잡아내는 순서

①月, 時 순서로 천간에 투출된 것 찾아내기

②천간에 투출이 안되었다면 지지에 局을 이룬 것

辛辛丁甲

卯未丑寅 乾

庚己戊

辰卯寅

- 甲木이 陽으로 투간되어 있으므로 혼잡이 아닌 뿌리를 거느린 것이지만 지지가 혼잡이므로 혼잡될 준비가 되어있고 乙木만 나오면 혼잡이다

- 정재격의 용신은 식상인데 식상이 없다

- 그럼 다음으로 地支에 局을 짰 것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寅卯가 局을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짜고 있고 혼잡이므로 재성격이고 재성격이므로 용신이 식상인지 관성인지 알 수 없으므로 재성이 약하면 식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관성으로 용신을 잡아서 공무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 재다신약(財多身弱) 격이다
- 재다신약(財多身弱)이므로 비겁과 인성중 한 개를 잡아야 하는데 인성이 우선이다
- 丑土나 未土중 한 개를 잡아야 하는데 丑月에 따뜻한 未土를 잡을 것이냐 물기가 있는 丑土를 잡아서 水生木을 겸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하는데 본인의 마음이다
 - ▶ 따뜻하게 살자니 식신생재(食神生財)가 올고 식신생재(食神生財)를 살리려니 따뜻한게 올고
 - ▶ 일하라고 하면 아프다고 하고 집에서 쉬라고 하면 나가서 일하려고 한다
 - ▶ 丑月에 丁丑, 乙丑 떠 있으면 丁火가 망가진다
- 丑月에서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운따라 가게된다
- 용신이란 그곳에 정신이 있는 것인데 용신이 두 개이고 서로 다르므로 어딜 가나 불만이 있고 잘해주면 친한 줄 안다

壬丁辛己

寅酉未酉

- 식신격에 편재용신
- 천간에 陰이 투간되었을 경우 지지 酉金은 陽도 될 수 있고 陰도 될 수 있으므로 金만 오면 혼잡된다
- 식신격에 신약은 곤란하므로 억부로 넘어갔다
 - ▶ 食財가 많은 경우 ⇨ 인성용신
 - ▶ 財가 많은 경우 ⇨ 비겁용신
- 식재(食財)가 많아 인성용신이므로 식신격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나가서 장사하고 팔 수 있고 남을 속여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만 할 뿐 실제로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인성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 신약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억부로 해서 식신격이 소용없어져 버렸다
- 주인, 스승, 부모, 물주를 물고 늘어져야 하며 여성의 경우는 일 번 주인이 남편이고 다음이 부인이다
- 財로 가면 돈을 벌고 인성으로 가면 공부하고 관으로 가면 직장 다니며 개두절각으로 가면 잠시 나갔다 들어오는 것임
- 신약하므로 재운에 돈을 벌어도 결국 나가게 되며 행복하거나 좋아 지지는 않으며 돈을 벌더라도 과중과로 돈 벌게된다
- 흉신이 하나도 없으므로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잘못해도 당당한 모습 없이 없고 안정이 되어야 움직이는 사람이다
- 財運에 돈이 깨진다는 것이 일단 맞는 것이고 돈을 벌더라도 과중과로 나오고 여성은 고부갈등이 대단히 심하다

壬乙壬丁

午丑子未

- 정인격에 관용신인데 정인은 위낙에 깨끗한 것을 원해서 이 정도도 혼잡이다
- 정인격에 관용신은 신왕해야 하는데 일간이 根이 없고 官도 없으므로 官을 용신하기 어렵다
- 일간이 根이 없으므로 규칙적인 직장생활을 버려내기 힘들고 인성격의 특성상 두 시간 일찍 나가거나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다
- 무관(無官)이므로 직장생활 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함
- 陽干으로 용신을 취한 사람은 陽干이 노는 곳에 가지 않고 陰干이 노는 곳에 가서 놀면 왕따 당하기 좋다
- 인성격에 무관(無官)이므로 다른 格을 잡아야 하는데 투간된 것이 식신이지만 원래 정인격은 가슴에 남아있으므로 운에 따라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결국 운 따라 가는 것이다
 - ▶ 庚, 辛, 癸, 辛, 酉, 子, 亥 등을 만나면 정인으로 갈 것이다
 - ▶ 丁, 丙, 戊, 己 등을 만나면 식신으로 갈 것이다
- 己酉 大運은 한 가지는 인성으로 한가지는 식신으로 가므로 둘 다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 30대 중반에서 40대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온 것임

戊丙癸甲

戊子酉午

戊己庚辛壬

辰巳午未申

- 年에 양인이 있다고 해서 양인이라 하지 않으며 해결의 필요가 크진 않지만 만약 월이 아니더라도 일이나 시에 있었더라도 관을 용할 필요가 있다
- 丙火가 신약하다
- 정재격에 식신용신으로 용신이 旺하다
- 格이 서있긴 하지만 신약하므로 甲木 하나가 더 보태어 져야 한다
- 격보다 용신이 너무 강하므로 정신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다
- 格과 용신 중 格을 치면 사주가 흔들리게 된다 ⇨ 酉金은 巳火가 오면 움직이게 되며 丑土나 辰土가 와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 午火 ⇨ 실력이 최고가 된 자로 거두어들이는 최고를 의미 함, 자체를 해야함, 하지 말라구 해도 함
- 酉金 ⇨ 숙성된 자로 火나 水가 와야 함, 겸손함, 애늬은이
- 子水 ⇨ 대기하는 자,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다녀야 함
- 卯木 ⇨ 기대주, 꿈나무, 건방지게 굴어야 함, 실제로 건방짐, 어릴 때 초기발전, 김미연도 卯木月임

甲戌癸乙

寅辰未巳 乾

- 格과 격국용신, 억부용신, 조후용신, 전왕용신 순으로 감명순서를 정함
- 비겁월에 정관격인데 비겁월이므로 정관이 필요하고 정관격이므로 인성이 필요한데 편관이 지나치게 강하다
- 또한 조후로 부인인 癸水가 있고 지지로 형제인 진토가 있다
- 조후는 사는 낙을 의미하는 것이지 발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자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지 남자한테는 필요 없다
- 생각하는 용신과 운에 따라 행동하는 용신이 다 다른 것이다
- 정관격에 혼잡이 편관격이고 인성용신인데 인성운에 들어가면 어부가 깨어진다.
- 財運이 좋은데 조후가 되므로 조후로써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亥水가 들어오면 甲木이 확 살아서 신살양정(身殺兩停)을 켤 수 있다
- 亥水와 申金은 巳火를 깨서 신살양정(身殺兩停)을 깨므로 일이 벌어지게 된다

戊辛庚辛

戌巳子丑 乾

- 금수식신격(金水식신격)에 용신은 財이며 官을 쓰는 건 어디까지나 조후의 용도이다 ⇨ 금수상관격(金水상관격)이든 식신격이든 일단 자신이 편하거나 원하는 장소가 아니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생성된다는 의미가 됨.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간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됨
- 財가 없으므로 식신격의 역할을 할 수 없다
- 조후가 일단 운에서 들어오면 자신이 편한 쪽으로 방법을 취하고 진로를 정하고자 한다
- 식신격이므로 官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데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금수식신격(金水食神格)이므로 火가 들어오면 格이 水가 살아난다는 의미로 火가 官이 되는 것이 아니라 水가 곧 官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뚜렷히 할 일이 정해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火運에서 그 분야의 뚜렷한 일인자가 되는 것이다 ⇨ 부와 명예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의미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이 어디를 가든 일인자가 된다
- 목화통명(木火通明)은 벼슬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
- 돈 많이 벌려면 金水運에 들어오면 되고 마음이 편하려면 화운에 들어오면 되므로 마음이 편하니 돈이 안 벌리고 돈을 버니 마음이 안 편하게 되어서 이런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 말이 핀트가 안맞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 음양용신 火와 五行용신 水 두 개가 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이다

乙丙乙丙

未申未午 乾

(己)

- 辰月에 甲木이 투간하는 것은 木剋土로 곤란한 것으로 五行적으로론 말이 안되며 五行순행상 맞지만 火가 없으면 순환이 안된다
- 辰中甲木, 未中乙木, 丑中乙木, 戌中甲木 모두 剋관계가 형성되므로 순환이 필요하다
- 상관격으로 인성용신이 되고 정인격으로 관살이 필요한데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
- 木火 태왕(太旺)으로 申金이 용신으로 음양용신 밖에 잡을 수 없으며 오행으로 이야기가 안된다
- 음양용신과 오행용신은 다르며 음양용신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행용신 또한 운동하지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水火가 운동하지 않는데 金木이 움직일 수 없듯이 수를 타고 木이 올라가고 金을 타고 火가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내려오는데 火 없이 金을 쓸 수 없으며, 金이 火 없이 水를 만난다면 타고 내려오는 건 사실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죽으라고 하고 남는 것은 없다

●용신

-관성용신에는 재성과 인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없으면 용신의 쓰임새가 없다

- ▶ 재성이 없으면 귀인이 없고 부인덕이 없는 것이고 인성이 없다면 진급이 안되고 상사가 없는 것이다
- ▶ 비겁이 다 해서 관성용신을 잡았는데 인성운이나 인성이 있어서 비겁을 생하는 건 2차적인 문제이다

-인성용신자는 官이 필요하고 신약해야 한다

- ▶ 官이 없다면 그 인성은 식상이고 재인 것이다
- ▶ 官이 약하면 명예를 추구 할까말까 생각하다 시간만 간다
- ▶ 官이 없다면 생각 없이 무식하게 개업할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다
- ▶ 인성용신자를 계속 인성 대접 해주면 석달열흘 상담 걸리므로 한 개 한 개 까먹어 가면서 장사치로 밀어붙여야 함
- ▶ 정인격은 사회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편인은 이미 타협에 들어간 것이다

-官은 타고난 성격이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다

-인성만큼 官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다

- ▶ 인성과다(印星過多) ⇨ 극설(剋洩)되어 남편이 병 든다. 남편 대신 살아야 함, 시부모가 따라붙음
- ▶ 일간과 인성이 약할 경우 ⇨ 남들한테 피해를 당함
- ▶ 식상과다(過多)(食傷過多) ⇨ 남편 대신 살아야 함. 자식이 따라붙음
- ▶ 식상이 弱 ⇨ 대항력이 상실됨
- ▶ 인성과다(印星過多)는 무자식일 가능성이 있다

-財는 식상생재(食傷生財)로 갈것인가 財生官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식상이 약하면 비겁이 필요하고 강하면 재성이 필요하다
- 관성용신에 인성이 없거나 인성용신에 관이 없다면 관직에 이를 수 없지만 식상이든 재성이든 한 가지가 없다고 사업을 못하지는 않는다
- 일간과 관성 중 둘 다 약하면 일단 관성부터 도와야 하고 둘다 왕하면 일단 관성을 제해야 한다

辛庚丙辛

巳午申酉

- 건록격에 비겁이 多하고 관살이 多하므로 금수식신(金水食神) 용도로 쓴다
- 의숙이 사주와 달리 生地月에 난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통변할 때 금수식신격(金水食神格)으로 해도 된다
- 丙辛습으로 水가 발동이 되었고 관을 버렸다
- 진로는 식상생재(食傷生財)이며 다른 사람 보다 시행착오가 많다
- 官이 많으니깐 정신은 인성에 가 있다
- 財가 있었으면 財生殺로 욕심이 한 개 더 있는 것이므로 골치 아프다

庚丙辛丙

寅寅卯午 坤

- 인성과다(印星過多)는 재용신인데 문제는 정인격이라는 것이다
- 정인격이 인성격이 되었으므로 재성 용신이긴 하지만 과연 정인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 庚金이 寅木만 제거만 한 게 아니라 辛金도 卯木을 극하므로 金克木으로 財克印을 당한 것이다
- 財가 용신인 것처럼 해서 財克印을 해버렸다
- 그래서 비겁으로 財克印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성이 또 살아나게 된다
- 결론적으로 비겁을 쓰면 인성이 살게되고 재성을 쓰면 인성이 죽어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용신을 구하기는 힘들다

- 財克印 하고있는 財를 비겁이 制를 해서 잡으므로 희신이 아니라 기신을 잡아야 한다

▶ 壬水가 들어오면 辛金이 살아나서 金克木 한다

▶ 辛金이 들어와도 안된다

- 결론적으로 용신은 없고 기신만 잡아내야 하는 사주가 된 것이다

- 현재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

- 丙火와 辛金이 둘이 잘 짜여져 있으므로 이 둘만 안 건드리면 평생 아무 일도 안 생긴다

- 地支가 아닌 天干으로 財克印을 했으므로 정신으로 자기 자세를 하는 것이다

- 마음 먹기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 乙酉 대운이 되면 운을 보장하지 못한다

辛辛丁甲

卯未丑寅 乾

- 편인격에 木이 있으므로 자신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사주이다

- 財克印 하고있는데 辛金이 卯木을 財克印 못하게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辛金은 건드려서는 안된다

- 財克印이 적당히 잘 되어있으므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고 그 고마움을 아는 반면 위의 사주는 財克印이 두 개가 되어 있어서 財克印이 제대로 되어있으므로 고마운 줄 모른다

- 木生火 정인격은 사회, 문화, 윤리, 도덕을 따져가면서 하지만 土生金 정인격은 나 귀찮게만 얹하면 된다고 생각함

▶ 木生火는 사회, 문화, 윤리, 도덕이고 土生金은 이미 정지이므로 다 해먹은 것임

- 비겁운이 財로 가고 官으로 가는 것이므로 결혼, 개업, 직장 다니는 사람 대단히 많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이 사주나 위 사주 모두 비겁이 역할을 하므로 형제가 희생을 하고 주위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아버지가 희생을 당한다
- 두 사주 다 타고난 것이 자신과 무관하게 서로 적절히 조절이 되어 있고 인성격이므로 먹고살기 위한 계산법하고는 틀리고 인성격 만의 독특한 계산법이 있으므로 식상격은 이런 사람을 보고 밥통 같다고 생각한다
- 어디를 가면 자신을 환영하고 어디를 가면 자신이 소외시킨다
- 비견, 겁재가 역할을 하면 호위를 당하든지 리더를 하든지 해야한다
- 인성격에 관성이 오면 무조건 써먹게 되며 추운 선달에 태어났으므로 1년 늦게 써먹게 되며 그 다음 또 인성이므로 못 써먹고 공부하게 되는 악순환이 빈번된다. 만약 봄철에 대이났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木生火로 빠르게 써먹게 된다
- 둘 다 相生이 아닌 相剋으로 돌아가므로 실수는 극으로 남게된다. 따라서 항상 불안하고 언제까지 하게될지 모른다. 相剋으로 돌아가므로 계약직 근로자이다. 相剋이므로 적 또한 언제든지 있다
- 相剋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 항상 같지 않다라는 의미이며 相生이란 그와 반대로 언제나 같고 비슷하다는 의미이고 심심하다란 의미가 된다

격용신과 일간용신

戊己戊己

辰未辰未 坤

- 종격
- 일반적으로 잡는다면 乙木 기준으로 해서 편관격 ⇨ 목왕절(木旺節)
- 종격이라도 편관격이 되므로 살생필설(殺生筆舌)로 가게된다

丁乙壬戌

亥亥戌戌 乾

丙

寅

- 복토정재격(木土正財格)
- 亥中甲木을 뿌리로 불것인가 신약으로 불것인가 丁火가 식신 역할을 할것인가 無官 사주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결할 문제가 다양하다
- 이런 사주는 정리를 해야함
- 일단 戌土에 대한 용신은 丁火 식신이므로 정재, 식신으로 금융계통의 직장을 다닌다.
 - ▶ 상신(相神), 정재 ⇨ 경영계통, 사업적 재질
 - ▶ 식신, 편재 ⇨ 직장 다니다 사업을 다니는 점원사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다니다가 나올 사람
- 水運에 착실하게 직장 다니고 丙火運에 퇴직하고 寅木運에 실업자됨
- 亥水가 있는데 寅木이 오면 호사다마로 이루어지는 운은 없으며 卯木이 와야 亥卯로 木生火 한다
- 용신이 어떤 거라고 말 할 수는 없다
- 乙木을 억부용신으로 살릴 수 있는 글자가 사주에 없다.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대항할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이 水用神이다
- 天干은 재인식(財印食)으로 밖에서는 멋있다고 하지만 지지(地支)는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財克印으로 가정이나 속사정은 환장할 노릇이다

- 이런 사람은 멋있게 넥타이 매고 와서는 인생 사는게 그런거죠 라고 이야기한다
- 퇴직후 한 번도 집에 월급 가져온 적이 없음
- 따라다니는 여자가 다섯명인데 교주처럼 떠받들
- 무관의 특징은 모두 財克印이다
- 丁壬습은 財克印이 됐다 안됐다 하므로 환장할 노릇이다
- 정재격은 경제, 직장, 저축을 말하는데 식신이 있지만 수 때문에 엄청나게 약하므로 식신에 대한 관념의 높낮이가 낮아서 언제든지 다른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신의 의미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 은행의 3층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억부용신으로는 정재격에 식상용신을 쓰려면 신왕해야 하므로 신왕으로 친다면 억부용신이 필요 없으므로 그냥 식신용신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상 신왕으로 보기도 애매하다. 甲木이나 丙火 하나만 있어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乙癸辛辛

卯酉卯巳 乾

- 癸水는 필요한 부분에 내리는 비로 아무것도 방해할 하지 않고 질투심만 있고 내가 필요한데 왜 네가 가져가냐고 생각한다 ⇨ 통변
- 돈이든 뭐든 癸水가 오면 다 해결하는 만물박사이다
- 卯酉沖 ⇨ 죽순절취, 살만하면 무너진다, 키보질 못했다
- 따라서 卯木이 제대로 커지 못한 것이고 天干의 辛金은 칼이고 丁火를 봤으면 보석이 되고 壬水를 봤으면 사금(砂金)이 된다
- 인성이 혼잡이 안되어 있고 대단히 깨끗하다.
- 사주 상에 많은 것과 없는 것을 기준으로 통변을 한다
- 인성多 ⇨ 마음이 책임을 지지만 몸이 안따라가는 것임
 - ▶ 고생하면 안되고 신발에 흙 물이지 않으며 고생은 부인이 해야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 적성은 언론, 출판, 문화
- 인성이 많아므로 아버님이 책임이 많은 분이지만 인성이므로 부인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
- 비겁이 없을 경우 ⇨ 리더쉽이 없고 후원자가 없다
- 運에서 용신이 왔다고 다 해결된다고 믿지 마라
- 활동성을 보려면 식상을 봐야 하는데 식신이므로 우유부단이다. 상관은 못먹어도 고우다
- 사회적응력은 월지를 봐야하는데 원래는 식신생재(食神生財)로 사회적응력이 있는 사람인데 卯酉沖으로 도식(倒食)이 되었으므로 일반하면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호사다마, 중도하차의 사주이다
- 식신생재(食神生財)의 적응력은 꾸준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관생재(傷官生財)는 한방 터뜨리는 것이다
- ▶ 식신생재(食神生財)는 6개월만 하고 팔아 먹어려고 해도 잘 안되지만 상관은 단기간에 승부하고 한방에 터뜨리는 장사를 해야하며 장기전엔 오히려 불리해지고 약하다
- 작업력, 적응력은 사회적 활동이므로 반드시 월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
- 처첩의 복덕은 첫째 일지를 보고 다음에 재성으로 본다. 무조건 宮을 먼저 봐야 하며 재성은 사회적 활동력, 금전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을 보는 것은 宮을 봐야한다
- ▶ 宮이 卯酉沖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미(卯酉沖의 특징)이다
- 인성운이 오려면 젊었을 때 오던가 나이가 들어서오면 공부중, 수양중이 되어서 곤란해진다 ⇨ 20대 이전에 와야한다

甲庚乙壬

申午巳寅 乾

- 편관격으로 첫째 신왕해야 하며 식신의 유무에 따라 편관이나 七殺의 갈림길이 생긴다
- 편관이 되었다면 엄격한 검사, 질서유지이며 七殺이면 용맹무모, 죽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음, 어둠, 시체, 시들음, 난감, 꺾박, 죄수를 의미

- 신약인데 寅성이 없으므로 억부용신은 없고 成格이 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비견으로 억부용신을 삼았고 시에 있으므로 자식 보고 산다
- 無인성에 財生殺까지 되었다 ⇨ 財生殺이므로 스스로 대단히 피곤해 진다
- 재자약살(財滋弱殺)은 나라나 구청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 편관격은 연장 든 사람을 의미하며 살생필설이다
- 인성이 없으므로 그 미련이 대단하므로 더 강력하게 인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 원래 배우고 가르치는 학문, 생각, 좋은 말 해 주기, 돌봐 주기 등이 적성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 지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다
- 신약하면 무조건 억부용신이 인성이므로 행동과 마음이 따로고 우리나라 사람의 70%가 마음과 행동이 따로이다
- 인성과 식신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서 마음과 몸이 골고루 편해야 하는 사람이다
- 편관격이 억부용신으로 넘어간 사주이고 火가 旺하므로 水가 필요하다 ⇨ 일간이 강하다면 식신이 格用이 되는 것이지만 일간이 약하므로 편관을 제압하는 용도에 그친다
- 억부용신이 되었으므로 일반 사주처럼 통변하면 된다
- 식신은 제조업을 제일 많이 하며 재테크는 공장확장이 아닌 공장에서 나온 수익을 주택이나 부동산 등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상관의 재테크는 공장확장이 재테크이다
- 식신의 단점은 포장할 줄 모른다는 것이며 포장은 상관에게 외주를 주어야 한다
- 식신용신은 좋게 말하면 꾸준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격국용신과 억부용신의 관계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대개 格運에는 사회적인 확장을 한다 ⇨ 진급, 확장
- 格運에 들어왔는데 역부가 무너지면 진급을 하고나 니 더 힘들어 지는 것을 의미하고 바쁘고 책임이 많아진다
- 格運에 들어왔는데 역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가지로 두 가지를 얻는 것이고 지위를 얻으면 편안하게 생활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만 역부가 무너지면 책임만 늘어나고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기가 힘들다
- 결론적으로 역부용신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이다
- 위의 사주(이주면)에서 辛巳年은 格運이므로 매우 바쁘지만 신약해서 역부가 무너지므로 바쁜 만큼 성과를 얻기 힘들고 물건을 만들면 30%는 불량일 수 있다는 의미임
- 格運이 들어왔을 때 역부를 해하는지를 먼저 봐야하고 格運이므로 확장을 하게 되고 일단 잘나간다고 소문이 나지만 무너지는데 역부를 해칠 경우 2년 반에서 3년 밖에 안 걸리며 그 후의 확장에 의한 책임을 져야한다
- 天干의 辛金은 좋으므로 사회적 활동적인 면은 상관없이 없지만 地支가 나쁘게 들어오므로 내가 하는 일은 바쁘고 실속이 없게된다
 - ▶ 巳申合의 경우도 역부를 무너뜨리는 역할 중에 하나이다
- 역부운에 들어왔는데 格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낙향을 의미한다. 돈벌러 나가는 운으로 남들이 저 녀석 용케 안죽고 살아서 나왔네~ 라고 이야기한다
- 格이 너무 약한데 格을 칠 경우는 역부운에 들어온다고 해도 대단히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 格을 칠 경우 사회에서 누락되고 경쟁자가 생기든지 하는 일이 발생한다
- 위의 사주는 조후도 필요한데 조후가 들어오면 역부까지 좋아진다
- 格運이 들어오면 역부를 무너뜨려야 문제가 발생하고 역부운이 들어오면 格을 해쳐도 되고 해쳐서는 안되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한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格運과 억부운이 상반되어서 들어오면 사회는 잘 나가는데 집안이 삭막하거나 집안은 화목한데 사회운이 나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
- 억부운은 전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 억부운으로 10년 별 것을 격운으로는 1년 안에 별 수 있다
- 격용신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억부용신을 잡는 이유는 그 사람의 대항력을 보는 것이다
- 억부용신다는 것은 가족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고 억부용신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 식신은 틈새를 알지 못하지만 상관은 틈새를 알며 상관은 포기가 빠르지만 식신은 포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
- 격국용신이 직업이면 직업이 취미고 취미가 직업이므로 8시간 동안 일하고 그 외의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 정재용신, 정인용신이 퇴근 시간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가고 편재용신, 편인용신은 퇴근시간 후 놀러 가는데 나름대로 취미생활이며 취미와 업무가 분리가 되어있다
- 억부용신으로 직업을 가졌다면 8시간 일하면서 4시간은 내가 이런 일 할 놈이 아닌데 하는 식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놀면서도 일 걱정을 하고 있다
- 억부용신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다
- 官旺해서 신약한 사주를 무조건 돈 버는 운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재성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식상을 상대한다면 자격중을 딸 것이고 관성을 상대하면 직장을 다니게 될 것이다
- 일단 억부로 넘어간 경우는 格으로 살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마음만이 그 곳에 존재할 뿐이다 ⇨ 사주를 알고 자신이 하고자 하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 위 사주는 억부로 넘어갔으므로 공부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無인성이므로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함
- 無인성은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건드리고 남자는 후원자가 없는 것을 건드린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인성이 없으면 官이 없는 것이고 官이 없으면 인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갑부의 아들이 용신은 약하고 희신만 多하면 제대로 된 사주이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인성격이나 관성격이나 하는 것이 관건이다

癸戌壬戌 丁

丑寅戌戌 乾 卯

- 건록격으로 정관용신인데 정관이 없다
- 일지 편관으로 군인, 경찰 적성으로 마음에만 남아있다
- 正, 편재 투간으로 格이 官에서 財로 옮겨간 것으로 조상이 하던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 그런데 운은 官으로 향했으므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있으며 이를 유전이라 한다
- 명식에서 한번 사업으로 바뀌고 운에서 한번 더 직장으로 바뀐 것이다
- 투간 된 것 중에서 뿌리가 제일 튼튼한 것이 癸水이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식상이 없지만 금왕절(金旺節)이므로 운에 들어오면 하게된다
- 확장은 格運에 들어오면 하게 되는데 戌寅, 己卯년에 한다
- 망하는 걸로 보상을 해야한다
- 계약을 했냐고 하니깐 금방 될 것 같다구 하는데 怨嗔이라 될 것 같으면서 되지 않는다
- 木은 억부용신이다
- 결론적으로 不格으로 格이 없고 집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난 것이다

辛辛丁甲

卯未丑寅 乾

- 인성에 의해서 강해졌으므로 신왕이 아닌 신강이 되어 식상을 치거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나 관성을 洩할 수 있다

- 인성이 多해서 木이 용신같고 신약한 것 같아서 辛金용신 같고 木이 多해서 金용신 같고 조후가 필요한 것 같아서 丁火가 용신인 것 같아서 사주쟁이마다 용신이 다 다르게 나온다
- 목다화식(木多火熄) 상태이다
- 햇갈리므로 시원찮은 사주이므로 이런 경우 무조건 官을 살리고 조후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
- 官이 용신인데 財가 조절이 안되어 있으므로 禍신이 왕하므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것임
- 木生火가 안될 때 鬼신이 보인다
- 식신이 와야 돈을 버는데 용신이 죽으므로 환장할 일이다
- 재성을 다스리려고 하면 날씨만 춥고 몸뚱이만 아프다
- 火는 사실상 조후로 좋을 것이 없고 금이다
- 火運은 일은 풀릴지 모르지만 발전이 없고 했던 거 잊어버리고 다시 하고 챗바퀴이다
- 金 억부용신에 와야 투쟁을 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난다
- 火가 올 경우는 천간이나 지지나 다 조후용신으로 작용한다
- 子月, 亥月이면 다른 것을 쓸 수 있겠지만 축월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밖에 없다
- 金克木으로 벽갑에 의한 조후란 없고 火가 살아나서 할 일이 생긴다는 생기고 할 일을 찾는다는 의미임
- 財生殺이므로 財를 탐하면 몸이 아프다

격국개념 정리와 일간의 동정

○ 격: 사회적배경, 문중, 집안, 부친

○ 용신: 격을 향한 정신력으로 반드시 돈을 버는 운이란 의미는 아니다

- 정인격이라면 용신인 정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정신력과 같은 것이다

- 용신이 너무 약하면 정신력이 없는 것이고 용신이 지나치게 강하면 의욕이나 정신력만 강한 것이다

- 格을 잡는 순서

① 월지가 향한 곳이나 투간된 것

② 태왕한 것

③ 일간의 움직임에 의해

- 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상관을 써야하는 것과 같이 격과 일간의 움직임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다

- 木은 火로 향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木의 용신은 火이다

▶ 만약 木이 많은데 金이 용신 되었다면 일간이 바라는 바와 충돌이 되는 것이므로 ⇨ 관공서에 다니지만 일간은 火를 바라므로 직장
과 취미가 다른 사람이다

○ 상관격(午月 甲木)

- 제일 먼저 사업을 생각해야 한다

- 응용, 임기응변

- 집안 자체가 상관의 집안이라는 의미이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 용신이 인성이므로 지식인 대접을 받고자 한다

- 인성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한 형태로 일은 일이고 자신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 따라서 이 사람은 정신은 인성에 가 있고 행동은 상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인성이 힘이 없고 약하다면 공부를 깊이 하지말고 개념만 알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성이 旺할 경우는 공부를 해야만 하므로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정관격

- 용신은 인성(정편 구분할 필요 없음)이 되고 희신은 재성이 된다
- 재성의 生이 없으면 정관격은 쓸모가 없다
- 이처럼 순용하는 길격은 격과 용신을 둘 다 살려야 되는데 물론 여가서는 재극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 인성이 식상을 제할 때도 인성이 희신역할을 하는 것이며 인성이 희신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부 않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직장에서 잘리는 격이다
- 원칙적으로 정관격은 인성이 아닌 이상 용신으로 쓰기가 힘들다

○ 편관격

- 용신은 식신이나 인성이 되며 이도저도 안되면 재생살로 종살 할 수 밖에 없다
- 식신용신 ⇨ 자격을 이룬 사람
- 인성용신 ⇨ 프리랜스
- 재생살 ⇨ 보조원의 명이지만 일간의 동정만 평화롭다면 그 직업이 천직인줄 알고 마음 편하게 살며, 정보검색사, 사서, 보관전문 등
- 일간의 동정은 온도와 습도에서 나온다
- 희신은 신과 살의 양정이다 ⇨ 신은 근으로 왕해야 하고 살은 재로 써 왕해야 한다

○ 정인격은 정관격과 동일하고 양인격은 편관격과 동일하다

○ 식신격

- 용신은 재성인데 편인을 제하고 있다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 먹을복, 부모복, 공부복, 학자복, 신앙심 등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모든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 격 중에 최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재성이 용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인을 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해서 돈만 버는 것이지 위에서 열거한 복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용신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용신이 있다면 용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식신격 재성 용신의 의무는 편인을 극하는 것이다
- 회신(상신) ⇨ 재가 편인을 제하면 승재관 할 수 있다
- 비견이 격을 생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두령 사주이다
- 식신생재는 돈을 벌다이므로 노동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財가 가서 편인을 제하면 계약을 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는 노동을 시키는 의미가 된다

○ 상관격

- 用神 ⇨ 정인으로 뚜렷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 상관패인은 정인이 하는 것이며 편인도 상관패인을 한다고 하지만 종사목적이 다르다
- 편관격이 식신이 용신이지만 木剋土의 경우 상관이 은근히 쓸 수는 있지만 순수한 것은 아니며 다른 목적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용신인 정인만 있다면 용신 중심으로 관인상생으로 갈 것인가 격 중심으로 식상생재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된다
- 상관패인을 하기 위해서는 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회신 1 ⇨ 관인상생 : 제도권
- 회신 2 ⇨ 식상생재 : 개업

○ 편인격

- 4대 살성인 상관, 편관, 양인, 편인은 무조건 각각 정인, 식신, 편관, 편재가 필요하다
- 양인에 정관을 쓴다는 건 정신력이나 의무감의 정신력 차이가 나는

2007 창광명리학회 추계 연수회 기념

것이므로 만약 변호사가 정관으로 변호사가 되었다면 개인착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다른 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긋난 육신을 이룬다면 정신력이나 의무감, 책임감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며 다른 세상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편인격의 용신은 정편 구분없이 재성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편이긴 하다
- 희신은 편인과 재성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며 멀면 안된다
- 정관격은 건록격과 같다
- 재격은 식신격과 같다

甲

亥 午

- 상관을 편인으로 다스리려고 했다면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상관을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 ⇨ 부모님 걱정을 한다든지 공부 안하고 산에 가서 땀감을 해온다든지
- 관이 없으므로 취직은 절대 안되며 가끔 할 수는 있다
- 남들 보다 열 배 더 이상 노력해야 한다
- 正印은 없고 편인만 있으며 건조하므로 일간의 동정이 있을 것인데 조후를 원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안정된 장소를 원하므로 돈을 벌면 집부터 사는 사람으로 무당이면 법당을 역학자는 사무실을 낸다든지 한다
- 午火의 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申金이고 巳火를 해결하는 건 酉金이다
- 사주에 申金이 없는데 운에서 辛金, 酉金, 亥水 같은 것이 오면 日干의 동정이 움직여서 아무리 가지 말라고 말려도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것에 보상을 하고 살게 된다
- 日干의 동정은 굴광성, 굴수성으로 나의 잠재적 의욕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된다